

하이원과 함께



하이파이브



하이원과 함께 하이파이브

강원랜드의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대학생과 청소년을 연결하는 따뜻한 멘토링 활동입니다. 하이원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하이샘(hi:SAM), 청소년은 하이디(hi:D)라는 다정한 애칭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태백, 영월, 삼척 출신의 하이샘 120명이 같은 지역 내 수백 명의 하이디와 만났습니다. 이들은 멘토링을 통해 공부하고 정서적 교류를 나누며 함께 울고 웃고 성장했습니다. 짧다면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10개월의 시간 동안, 서로를 도우며 함께 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틔운 작은 싹을 소개합니다.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보고서 발간사



안녕하세요. 강원랜드 대표이사 이삼결입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1998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지역 상생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은 2008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업 초반부에는 매년 장학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양적 성장에 집중했으나, 2020년부터는 멘토링 활동과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질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은 당사를 대표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우리 장학생들은 같은 지역에서 성장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학생 멘토는 후배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중·고등학생 멘티는 열정 어린 가르침에 눈에 띄는 성장으로 보답했습니다. 그 결과, 교과목 성적 향상, 동기부여 등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발간사를 통해 이토록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하이원 장학생 모두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이 지속되면서 멘티로 참여했던 학생이 멘토가 되어 자신이 받은 도움을 후배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더 나아가 폐광지역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2021년을 의미 있게 채워준 하이원 장학생들, 함께 힘써주고 계신 협력기관 『사단법인 점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의 선후배가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점프 대표 이의현입니다.

우선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을 멋지게 끝낸 우리 하이썸과 하이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몰입해 크고 작은 변화와 성장의 여정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점프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미래세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에 2020년부터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선후배가 장학과 멘토링이 함께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사회적기업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기회 격차를 줄이면서 청소년과 대학생, 사회인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위해 10년 넘게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쳐온 저희 점프에게도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여러 면에서 정말 가슴이 뛰는 멋진 사업입니다.

우선 지역의 선후배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코로나 시기에 IT기술을 활용해 진행하는 언택트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지역의 대표기업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임직원도 함께 참여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고, ‘교육은 100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 하이썸, 하이드들이 강원랜드, 점프와 함께 심고 있는 씨앗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지치지 않고 폐광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멋진 하이썸과 하이드들 수고 많으셨고, 코로나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신 강원랜드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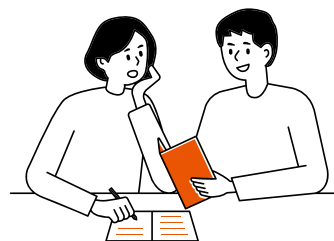
CONTENTS

01 꿈씨앗의 여정, 이제 시작합니다

- 08 꿈씨앗을 심은 자리,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을 소개합니다
- 10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이 걸어온 길
- 11 한 눈에 보는 2021년 성과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인사이트



02 꿈씨앗의 여정



- 16 짝꿍 인터뷰 ① 정 선
마음을 보듬으며 함께 성장하는 팀
- 20 짝꿍 인터뷰 ② 태 백
소통하며 함께 성장한 팀
- 22 짝꿍 인터뷰 ③ 영 월
친화력으로 쌓은 발판으로 한 단계 점프하는 팀
- 26 짝꿍 인터뷰 ④ 삼 척
열정으로 뚫을 뚫어 하나된 팀
- 30 하이샘 인터뷰 ① 정 선
“끊임없는 배움으로 달리고 싶어요”
- 32 하이샘 인터뷰 ② 정 선
“남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 34 하이샘 인터뷰 ③ 태 백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 36 하이샘 인터뷰 ④ 태 백
“꿈을 향해 한발 점프하는 법 알게 됐죠”
- 38 하이샘 인터뷰 ⑤ 영 월
“받은 만큼 돌려준 기억으로 더 책임감 있는 어른 될래요”
- 40 하이샘 인터뷰 ⑥ 영 월
“조금 느리더라도 완주하는 법 배웠죠”
- 42 하이샘 인터뷰 ⑦ 삼 척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졌어요”
- 44 하이샘 인터뷰 ⑧ 삼 척
“고민하며, 준비하며 사는 법 배웠어요”

03 하이원 멘토링 장학의 특별한 시간

- 48 장학캠프
하이샘과 하이디, 서로 만나다
- 50 보수교육
하이샘의, 하이샘에 의한, 하이샘을 위한
보수교육 간담회
- 52 미래교육
세상을 보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돕는
미래교육(디자인씽킹)
- 54 미래교육 우수 아이디어 팀 인터뷰 - 01 정 선
정 선 방구석 스테디메이트
- 56 미래교육 우수 아이디어 팀 인터뷰 - 02 태 백
영양 가득 밥상 만들기(feat. 텃밭 가꾸기)
- 58 미래교육 우수 아이디어 팀 인터뷰 - 03 정 선
횡단보도 트릭아트
- 60 미래교육 우수 아이디어 팀 인터뷰 - 04 삼 척
소통하는 사계절 버스정류장
- 62 꿈키움 페스티벌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꿈을 가꾸는 시간, Dream Gardening”
- 66 사회인 멘토링
하이샘, 든든한 울타리를 만나다
사회인 멘토링
- 68 사회인 멘토단 인터뷰 ①
“교사로서 초심을 떠올리게 됐어요”
- 69 사회인 멘토단 인터뷰 ②
“과거의 내 고민 떠올라 공감하며 현실적인
조언했죠”
- 70 사회인 멘토단 인터뷰 ③
“하이샘처럼 안주하지 않고 살려고요”
- 71 사회인 멘토단 인터뷰 ④
“멘티들 칭찬에 더 뿌듯함 느꼈죠”
- 72 예능 장학
하이디, 예술로 날아오르다
예능 장학 체험 프로그램
- 74 수료식
HAPPY ENDING 다정한 안녕, 새로운 시작의 날



04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특별한 조력자들

- 78 서포터즈
하이! 홍보 서포터즈 하이ON을 만나다
- 86 ON AIR
EBS에 담긴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 88 하이원 뉴스
하이샘, 마음을 담다
멘토링 수기 공모전 수상

05 하이디와 하이샘의 진솔한 이야기들

- 92 수기
이제, 꿈씨앗을 다 심었습니다
활동을 마친 하이샘-하이디들의 이야기
- 98 Ending letter

0

1

2

꿈씨앗의 여정, 이제 시작합니다

폐광지역 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돕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꿈을 위한 씨앗을 심어온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이 거둔 성과와 그간의 히스토리를 소개합니다.

p008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을 소개합니다

p010

히스토리 |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이 걸어온 길

p011

인사이트 | 한 눈에 보는 2021년 성과

꿈씨앗을 심은 자리,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을 소개합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은,

전국 폐광지역 중 고등학생 및 강원 폐광지역 고교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생활 안정을 통한 학업의 집중을 지원하고,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인적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는 강원랜드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장학 프로그램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입니다. 폐광지역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청소년과 대학생이 연결되어 맞춤형 학습 지도 및 정서 지원 멘토링 활동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는 하이원 예능 장학입니다. 2020년 시범 운영된 유형으로, 미술 분야에 재능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을 선발하여 단계적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하이원 SOS 장학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질병, 사고 등)에 놓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 등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2021년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0년은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리뉴얼 원년으로, 장학생 선후배 간 멘토링 활동이 새롭게 도입되어 장학생 모두가 교육 나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학생들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장학금 지원의 내실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은 탄탄한 기틀을 갖춘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으로 한 단계 Step Up! 학습·정서·진로 등 온라인 멘토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참여인원과 기간 등 멘토링 활동의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장학생 사전교육, 멘토링 보수교육, 미래교육(디자인씽킹 워크숍), 예능 장학생 체험 등 체계적인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학생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2021년
활동기간	6 개월 (2020. 9 ~ 2021. 2)	10 개월 (2021. 5 ~ 2022. 2)
활동인원	하이샘 110 명	하이샘 120 명
	하이디 488 명	하이디 511 명
멘토링 총시간 (하이샘 누적 기준)	8,111 시간	13407.5 시간

하이샘과 하이디를 소개합니다!

청소년들의 든든한, Hi SAM 하이샘

hi: SAM

:하이샘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장학생이자 나눔을 실천할 선생님

하이샘은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대학생 멘토입니다. 정선, 태백, 영월, 삼척 고교를 졸업한 선배로 지역 후배들을 위한 교육 나눔을 실천합니다. 하이샘은 청소년 멘티(하이디)와 온라인 화상 회의 톨을 통해 매주 4시간 씩, 10개월 동안 꾸준히 만나며 학습부터 친구 관계, 취미와 관심사, 직업과 진로까지 다양한 주제로 정보와 고민을 나누고 신뢰 기반의 유대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사회인 멘토링에 참여하며 대학 생활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취업 등 진로를 탐색하는 열정적인 멘티가 되기도 합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멘티, Hi D 하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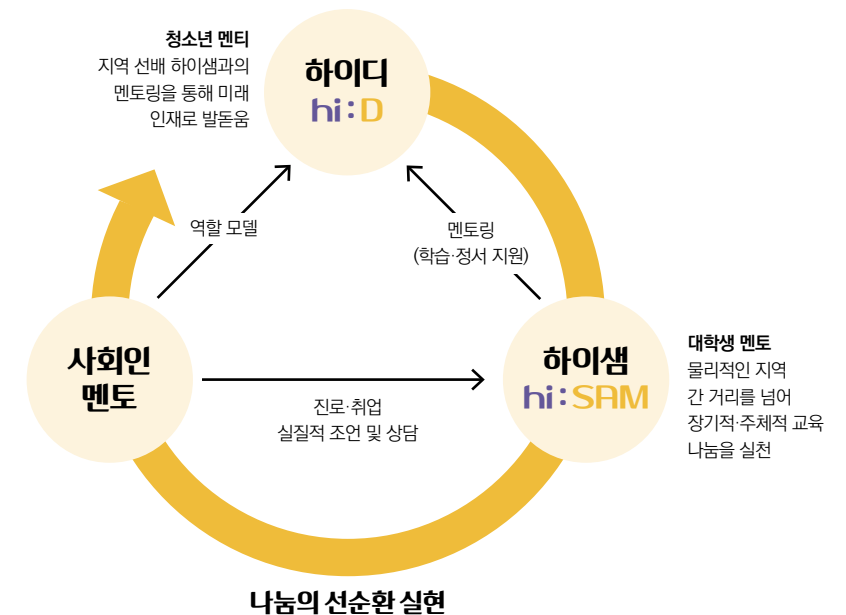
hi: D

:하이디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장학생이자 지역의 미래 인재

하이디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청소년 멘티입니다. 정선, 태백, 영월 삼척 지역 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강원 폐광지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꿈나무입니다. 든든한 지역 선배인 하이샘과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친밀하게 교류하며 자신만의 꿈과 가능성을 찾고 키워나갑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장학금과 함께 미래교육, 꿈키움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성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얻으며 끊임없이 발전을 도모해 나갑니다.

삼각 멘토링 모델 소개

하이디가 하이샘으로, 하이샘이 사회인 멘토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 사업을 통해 미래 인재에서 사회의 주역이 되기까지 나눔의 선순환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이 걸어온 길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주요연혁

- 2008년**
 - 하이원 장학사업 시작
 - 강원 폐광지역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삼성꿈장학재단' 위탁 운영
- 2011년**
 - 수혜대상 확대
 - 강원 폐광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 지원
- 2016년**
 - 사업 운영방식 변경
 - 위탁 운영 → 직접 운영
 - 사업 명칭 변경
 - 하이원꿈장학 → 강원랜드장학
 - 중고등학생 수혜지역 확대
 - 강원 폐광지역 → 전국 폐광지역
 - 중고등학생 지원분야 확대
 - 우수(학업 및 예능) 장학생 지원
- 2018년**
 - 장학사업 추진 체계 및 비전 수립
 - 나눔, 기움, SOS장학
 - 신청 및 선발 방식 개선
 - 소득 증명 최소화로 학생 인권보호 장학사업 전개
- 2019년**
 - 장학생 성장 프로그램 도입
 - 학습 컨설팅, 취업 멘토링 등
 - 사업 파트너십 체결
 -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 2020년**
 - 사업 명칭 개선
 - 하이원 장학사업 →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 장학생 멘토링 활동 및 장기지원제도 도입
 - 사업 협력체계 구축
 - 교육지원청(학교), 교육전문기관 등
 - 예능 장학생 시범지원
 - 전국 폐광지역 미술 분야 재능 보유 청소년
 -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운영
 - 미래교육(디자인씹킹), 진로 박람회 등
- 2021년**
 - 강원랜드 임직원 사회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성과 연구 추진(진행 중)
 - EBS 미래교육 플러스 방영
 - 꿈의 씨앗을 심는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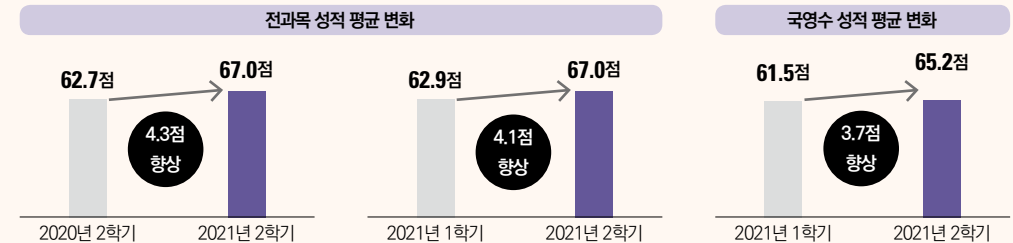
한 눈에 보는 2021년 성과 2021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인사이드

10개월의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하이샘과 하이디는 눈부신 동반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이 거둔 빛나는 성과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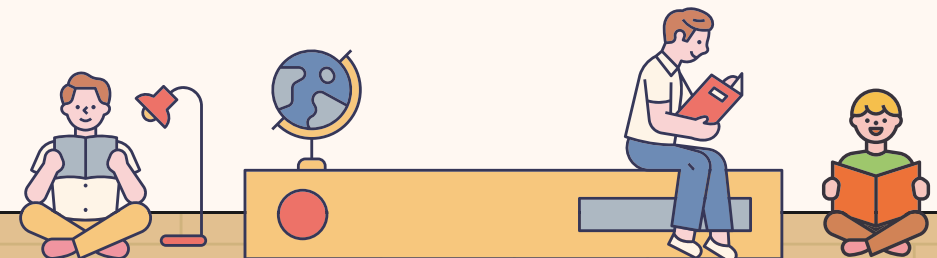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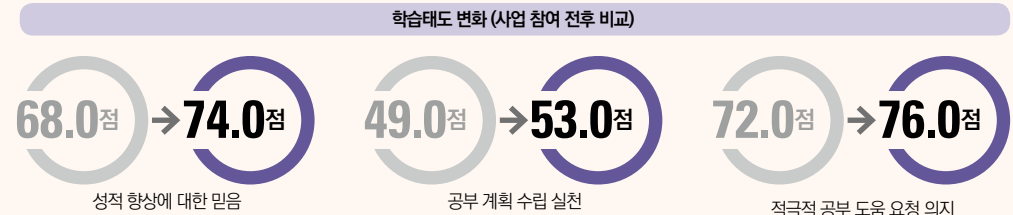
청소년 “하이디의 성장”

1 학업성취도 향상

“하이디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참여하며 1년 전, 6개월 전, 어제의 자신보다 한 발짝 더 성적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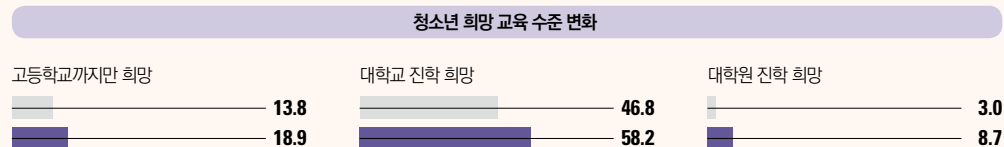


“하이디는 성적 뿐만 아니라,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태도도 높게 기르고 스스로를 믿는 단단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2 학습 동기 변화

“하이디는 하이샘과 공부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며,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학업에 임하고 싶다는 학습동기가 강해졌습니다.”



3 자기효능감 개선

“하이디 모두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기대 혹은 신념을 뜻하는 ‘자기효능감’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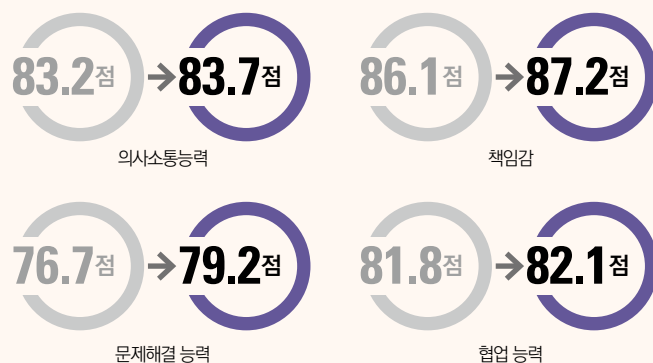
70.5점 → 75.2점

바른 말과 옳은 행동, 도전 정신, 성공에 대한 확신, 역경 극복,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등 6개 항목 전체 평균 향상

대학생 “하이샘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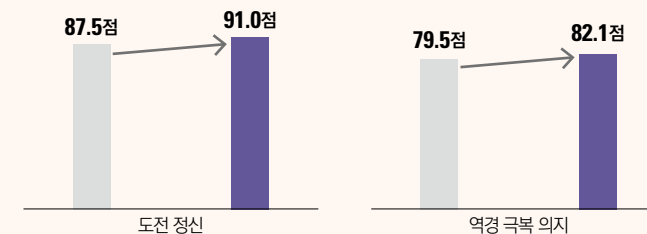
1 소프트스킬 강화

“청소년 멘티, 동료 하이샘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하이샘의 소프트스킬이 탄탄하게 강화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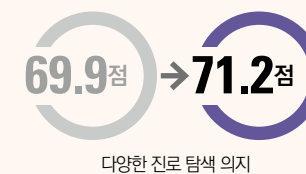
2 자기효능감 개선

“하이샘은 하이원 멘토링 장학 사업을 통해 진취적인 도전 정신과 역경 극복 의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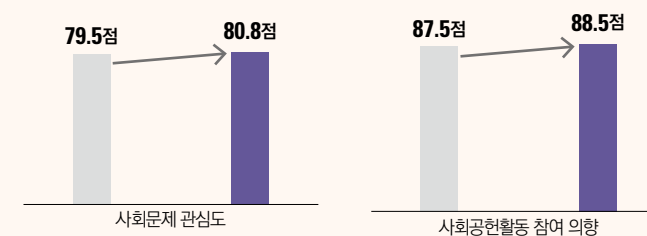
3 진로계획 확장

“하이샘은 사회적 멘토링에 참여하며 새롭게 폭넓게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자세도 생겨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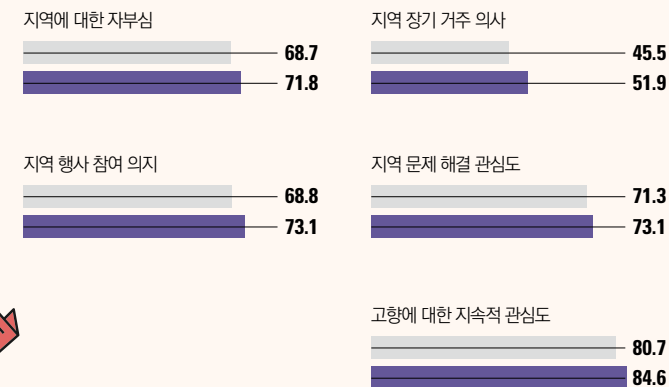
4 사회적 가치관 성장

“공정한 교육 기회의 주체로 활동하며, 하이샘은 교육 분야를 비롯해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전인적 인재로 발돋움했습니다.”



5 지역에 대한 인식 개선

“하이원 멘토링 장학 사업을 계기로 나고 자란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지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인재로서의 싹을 틔웠습니다.”



2

꿈씨앗의 여정

짜깁 인터뷰
하이쌤, 하이드와 만나다

멋진 팀워크로 총 10개월간의 긴 멘토링 과정을 완주한 하이쌤과 하이드가 있습니다.
더 넓은 시야에서 세상을 보기 위해 긴 시간 동안 함께 고군분투한 이들은 마치 가족과 같습니다.
더 큰 비전과 희망으로 채운 그들의 이야기, 살짝 들어볼까요?

p016

정선 | 이은주 하이쌤 + 장원호·최효강·배지혜 하이드

p020

태백 | 김서현 하이쌤 + 장서현 하이드

p022

영월 | 서윤지 하이쌤 + 김수진·손수아·하수진 하이드

p026

삼척 | 심찬혁 하이쌤 + 이중호·전현정·이혜은 하이드

p030

정선 | 고연탁 하이쌤

p032

정선 | 윤지성 하이쌤

p034

태백 | 김재현 하이쌤

p036

태백 | 이다은 하이쌤

p038

영월 | 유나겸 하이쌤

p040

영월 | 이수련 하이쌤

p042

삼척 | 김민희 하이쌤

p044

삼척 | 박준모 하이쌤

이은주 하이샘

장원호·최효강·배지해 하이드

마음을 보듬으며 함께 성장하는 팀



이은주 하이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하이샘 강원도 정선에서 하이샘으로 활동하는 인문융합학부 학생 이은주라고 합니다.

최효강 하이드 함백고등학교 3학년 최효강입니다. 장래희망은 직업군인이구요!

배지해 하이드 사북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장래희망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장원호 하이드 작가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장원호입니다.

Q. 어떤 계기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지원하게 됐나요?

이은주 하이샘 언제나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타인의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며 고여 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교과적인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최효강 하이드 주위 추천으로 지원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듣다 보니 저에게 도움되는 점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배지해 하이드 저도 주변 추천으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같은 지역 대학생이 '하이샘'이라는 것이 좋더라고요. 많은 것을 경험해 보고싶어서 지원했던 것 같아요.

장원호 하이드 장학금이 꼭 필요했고, 담임선생님께서 소개해주셔서 신청했어요. 선발되고 신나서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간 게 기억에 남네요.

Q. 우리 팀 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뭉치면 생기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은주 하이샘 진중하고 솔직하다는 것. 저희는 글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어느덧 익숙해진 팀입니다. 지나칠 수 있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선을 지닌 것이 특징이죠.

최효강 하이드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함께 뭉쳐 있을 때입니다. 멘토링을 시작할 때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땐 유쾌하게 웃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배지해 하이드 우리 팀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해요. 글을 쓰며 표현을 하면 더 여러가지 단어로 풍부하게 표현하니까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장원호 하이드 우리 하이샘은 처음에는 포근한 누나 같다는 인상을 확 받았었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수업하다 보니 굉장히 꼼꼼하시고 스마트하시더라고요. 생각이 깊으시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Q. 처음 만난 날의 분위기와 기분은 어땠나요? 매주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이은주 하이샘 처음 만났을 때는 아이들과 어색하기도 했고,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몰라 많이 힘들었어요. 수업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건지 회의감도 있었어요. 스스로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종종 있었어요. 쓸모 있는 사람인 것 같지 않고, 나를 못 믿겠고, 한없이 우울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이샘으로 활동하면서 반성하게 됐어요. '좋은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 적어도 책임을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아죠.

최효강 하이드 1월 자기성장 기록장을 쓸 때, 그동안 못 쓴 것도 있고해서 최대한 정성스럽게 썼어요. 선생님께서 잘 썼다고 엄청 칭찬해주시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아침에 정신이 비몽사몽 할 때 써서 잘 쓴 거라고 둘러댔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잘 쓸 수 있으면서 그동안은 그렇게 못 쓴 게 대충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까봐 그랬어요.

배지해 하이드 전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 일년이나 일대일 멘토링을 한다는 게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매주 수업을 할수록 점점 나 자신에 대해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평소에는 내가 지난 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재미있었는지 기억에 남는 걸 돌이켜 본 적이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지난 날의 나를 되돌아보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장원호 하이드 수업 중에 한 주 동안 한 시간 산책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때도 음악을 들었거든요. 근데 하이샘이랑 저랑 같은 노래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이샘이랑 음악 취향을 공유한다는 점이 놀라워서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Q. 멘토링 활동이 어렵고 고단할 땐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은주 하이샘 솔직하게 터놓고 말을 했어요. 이런 점은 어떻게, 저런 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대화와 글로 표현하고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했어요.

최효강 하이드 글이 잘 안 써지고, 주제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선생님께서 방향을 알려주셨죠. 저를 잘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배지해 하이드 평소에 배워보지 못한 수업이라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항상 하이샘이 옆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해결해 나간 것 같아요.

장원호 하이드



최효강 하이드



배지해 하이드



장원호 하이드 정해진 시간에 멘토링을 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멘탈 관리인데, 하이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아침에 더 자고 싶다 구시령대면서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됐고, 이런 호기심이 피곤을 이기게 해준 것 같아요.

Q. 하이샘·하이드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은주 하이샘 아이들이 국어 수행 평가 만점을 받아왔다고 자랑할 때! 심지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요!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내가 헛된 것을 하지는 않았구나,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함께라서 해낸 일이었죠.

최효강 하이드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부듯하네요. 그동안 헤쳐 나간 것이 있어서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는



하이섬의 수업 자료 중 하나. 글쓰기를 독려하며 자연스럽게 생각과 감정을 풀어내는 것에 집중했다.

거니까요. 함께라서 해낼 수 있었던 건, 글에 표현을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연 같은 것에 비교하며 시적표현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혼자라면 글에 손도 안 댔겠조.

배지해 하이디 멘토링에서 주로 글쓰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싫어했던 학교 국어 수업에 흥미가 생기고 집중하게 됐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이섬이 없었다면 여전히 국어를 싫어했을 거예요.

장원호 하이디 하이섬에게는 비밀이지만,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도 수업은 잠깐하고 영화를 봤는데, 도중에 졸아서 그날 밤에 다시 봤던 게 기억에 남네요.

Q. 나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이은주 하이섬 너무나 큰 의미였어요. 무너지는 순간에 일어서는 데 큰 기여를 해준 것이 바로 이 활동이었거든요.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정신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있었고요. 사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덕분에 대학 생활 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따로 방학기간 동안 모은 돈으로 지금은 잠깐 파리에 와있어요. 파리에서 메일링 서비스를 기획해서 글을 쓸

생각이에요. 지금도 파리에서 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인데, 외로운 타지에서 익숙한 아이들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저한테 가족 같고, 돌아오는 집 같은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효강 하이디 멘토링 활동은 저에게 있어서 도전의 의미였어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글짓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라는 꿈을 쫓았어요.

배지해 하이디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평소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 글읽기 같은 것들을 싫어했는데,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는 이 유일한 수업이 아니었다면 아마 앞으로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글을 쓸 때 자료를 찾고 영상이나 영화를 보면서 하이섬과 얘기도 나누다 보니 알게 모르게 지식도 쌓인 것 같고요.

장원호 하이디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 줬어요. 아무에게나 주는 돈과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시작하고서 내 비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이섬과 꾸준히 수업하면서 더 넓은 세상과 다양한 시각을 만나게 되고, 같은 문제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며 세상의 다양한 면모를 만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Q. 함께한 하이디-하이섬에게 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이은주 하이섬 언제나 애정한다! 너희들 덕분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내면서 성장할 수 있었어. 너희 모두 내게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야.

최효강 하이디 해주신 것이 많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글을 쓰며 배운 것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배지해 하이디 하이섬과 보낸 일년은 잊지 못할 거예요.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고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여러 하이섬들 중 선생님을 만난 건 행운이에요. 저는 앞으로 하이섬 같은 멋진 어른이, 멋진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장원호 하이디 어디서든 배우기 힘든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많이 위로 받았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은주섬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Q.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다! 이유와 함께 빈칸을 채워주세요!

이은주 하이섬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구름**]이다! 하늘로 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발판. 정말 하이원 멘토링이 아니었다면 못했을 것들을 자신감을 얻어 척척 해나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무척이나 고맙다.

최효강 하이디 하이원 멘토링은 저에게 [**기회**]였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다시 글을 짓게 됐으니까요.

배지해 하이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계단**]이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덕분에 매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원호 하이디 [**창문**]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 세상을 보는 문을 열어줬고, 은주섬과의 수업을 통해 제 세상 속 닫힌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넓은 세상,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Q. 내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이원 멘토링 장학과 관련된 것도 좋고 나에 대한 이야기도 좋아요!

이은주 하이섬 빠른 시일내로 출판을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글을 쓰는 직업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을 보고 느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최효강 하이디 성공적으로 군인이 되어 여유시간에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배지해 하이디 공부에만 얽매이지 않고 생각을 전하면서 꿈을 이루게 돕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장원호 하이디 식상해 보일지 몰라도 일단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냥 편하게 돈 벌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제가 꿈꿔왔던 첫 번째 목표에 도달했으니, 길을 다듬어서 더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먹고, 베풀고 싶은 사람들에게 망설임 없이 베풀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웃으며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제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색할 편안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More TALK

Ask 하이섬

Q. 하이디 덕분에 나는 이런 점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이은주 하이섬 이미 위에서 대답했는데, 무너지는 순간에도 일어나게 해준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었어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디에게 서로 한마디.

이은주 하이섬 커피 한 잔 마시며 이때는 어땠고, 저 때는 어땠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대되네요.

Ask 하이디

Q. 같은 지역의 대학생인 하이섬 덕분에 이런 부분의 궁금증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장원호 하이디 아직 딱히 대단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하이섬은 여행 다니는 곳도 많고,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고, 다양한 사진도 많이 보여줬어요.. 솔직 담백한 풍경을 보니 여행도 가고 싶고, 세상에 대한 궁금증도 조금 해소된 것 같아요.

최효강 하이디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배지해 하이디 학업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섬에게 서로 한마디!

장원호 하이디 먼저 인사할 자신은 없지만 하이섬께서 먼저 인사해주고 잘 지냈냐고 해주시면, 저도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할 게요. 엄청 반가울 것 같은데요?

최효강 하이디 물이 흘러서 바다에서 다시 만나듯, 지금 만나지 못하더라도 성공한 사람이 되어 나타나겠습니다.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지해 하이디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약간 연예인 만난 것처럼 신기할 것 같네요. 얘기 나누다 보면 금세 다시 친해질 것 같아요.

김서현 하이샘

+

장서현 하이다

소통하며 함께 성장한 팀



김서현 하이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서현 하이샘 태백에 거주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PD가 되고 싶어요.

장지현 하이다 안녕하세요! 태백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장지현입니다. 마케팅이나 광고를 기획하는 것이 꿈입니다. 전공은 경영학과, 혹은 광고홍보학과 생각 중입니다!

Q. 어떤 계기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지원했나요?

김서현 하이샘 저 또한 혼자 공부하는 것의 힘들음 알고 있고, 항상 멘토가 있었으면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장지현 하이다 다 같이 비대면으로 친구들과 영상으로 다양한

얘기를 듣는 게 인상 깊었어요. 하이원 멘토링 수업도 듣고 싶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선발하였습니다!

Q. 우리 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김서현 하이샘 저희 팀은 모이면 끊임없이 수다를 떨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루할 틈이 없고, 또 얘기를 들을 때는 무척 경청하는 분위기라서 언제나 존중받는 느낌이 든답니다.

장지현 하이다 일단 어색함이 없어져서 다같이 모이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 같아요. 다같이 하나가 되어 몰입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처음 만난 날의 분위기와 기분은? 매주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김서현 하이샘 멘토링이 처음이다 보니 제가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해서 준비한 것을 진행하기 바빴는데, 하이다에게 조금 더 여유를 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열심히 반응해주고 알려준 내용을 쑥쑥 흡수하는 하이다들을 보는 순간에는 그보다 더 보람 있을 수 없던 것 같습니다.

장지현 하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새로운 느낌도 있었어요. 공부 다 하고 마무리쯤에 근황 이야기한 게 기억에 남아요. 근황을 나누며 서로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Q. 멘토링 활동이 어렵고 고단했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서로 어떻게 극복했어요?

김서현 하이샘 학교 공부와 병행하다 보니 멘토링 준비가 부담 될 때도 있었어요. 바쁠 땐 멘토링 양이 줄어도 이해해준 하이다들 덕분에 부담을 덜 수 있었어요. 고마운 마음이 커요.

장지현 하이다 솔직히 전혀~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Q. 하이샘·하이다라서 부딪혔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김서현 하이샘 지현 하이다의 희망 진로와 제 전공에 교집합이 있어서 관련된 책을 읽고 대화했던 게 기억 남네요. 주변에 진로가 비슷한 친구가 없어 도움이 됐다고 해주셔서 부딪혔어요.

장지현 하이다 틀린 문제 설명 듣고 납득했을 때! 또

디자인씽킹 때 다 같이 모여서 각 지역에 뭘 설치하면 좋을지 상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의견 나눈 게 기억에 남아요.

Q. 나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김서현 하이샘 '나의 메시지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어요. 또 제가 멘티가 되는 사회인 멘토링이나 디자인씽킹 등의 교육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장지현 하이다 때로 저를 정신차리게 해줬어요. 좋은 의미로, 저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Q. 함께한 하이다·하이샘에게 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김서현 하이샘 저와 함께한 10개월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기를 바래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을 보면서 어디에 뭘 하든 다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거든 잊지 말고 꼭 알려주세요. 약속!

장지현 하이다 작은 것에도 칭찬하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다! 이유와 함께 빈칸을 채워주세요!

김서현 하이샘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영양제**]다! 일주일에 꼭꼭 챙겨 먹는 영양제처럼, 하이다들과의 만남이 하루이틀 쌓이고 쌓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줬기 때문이야.

장지현 하이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나의 일부**]다! 학교, 과외, 스터디 카페,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었는데 덕분에 많이 웃을 수 있어서 제 일부가 된 것 같아요!

Q. 내가 그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이원 멘토링 장학과 관련된 것도 좋고 나에 대한 이야기도 좋아요!

김서현 하이샘 사회에 선한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서 쌓은 경험과 인연이 좋은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지현 하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More TALK

Ask 하이샘

Q. 하이다와 함께 멘토링 한 경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하이다 덕분에 나는 이런 점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김서현 하이샘 '제가 이해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더 잘 와 닿을까? 어떤 활동을 해야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매주 준비했고, 하이다들의 반응을 피드백 삼아 상대를 배려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죠!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다에게 서로 한마디.

김서현 하이샘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해서, 실제로 여러분을 만나면 신기하고 또 반가울 것 같아요! 여러분을 존중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높임말을 쓰며 진행했는데,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진 않았을 지 걱정되기도 하네요. 다시 만났을 때는 편하게 언니, 누나로 대해도 괜찮아요!(웃음)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언제나 편하게 연락주길!

Ask 하이다

Q. 같은 지역의 대학생인 하이샘 덕분에 이런 부분의 궁금증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장지현 하이다 하이샘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 최저등급 같은 것은 물론 더 디테일한 입시 정보를 통해 궁금증을 풀 수 있었어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샘에게 서로 한마디.

장지현 하이다 엄청 신이 날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의 멘토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공, 열강의 흔적 가득한 수업자료들.

서윤지 하이샘

＋
김하진·손수아·하수진 하이디

친화력으로 쌓은 발판으로 한 단계 점프하는 팀



서윤지 하이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윤지 하이샘 안녕하세요. 영월에서 온 22살 서윤지입니다. 국제 개발 협력 활동가가 되기 위해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불어불문학, 문화인류학을 공부 중입니다.

김하진 하이디 영월에 거주하는 김하진이라고 합니다. 장래희망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영화감독, 언더웨어 디자이너, 한복 디자이너 등 대중예술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손수아 하이디 안녕하세요, 영월에 살고 현재 중등 수학 교사를 꿈꾸고 있는 17살 손수아 하이디입니다!

하수진 하이디 영월군에 살고 있는 하수진이고 장래희망은 광고 디자이너입니다!

**Q. 어떤 계기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지원했나요?
지원부터 선발까지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윤지 하이샘 신청할 당시에 강원 학사에 거주 중이었는데, 학사 내의 홍보 포스터를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마침 룸메이트가 정선 출신이라서 함께 지원했는데, 무척 긴장해서 서류와 면접 준비를 서로 도와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김하진 하이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소개해주셔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운 좋게 선발돼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손수아 하이디 중학교 담임선생님께서 권유하셔서 좋은 기회다 싶어 선뜻 지원하게 됐어요! 장학금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는 데다, 중학생 기준 연간 180만원씩 장학금이 주어지니 부모님께서 많이 부듯해하시고 좋아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하수진 하이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지원했어요.

**Q. 우리 팀 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함께 뭉치면 생기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서윤지 하이샘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친구 같아 보이고 정신 연령도 비슷한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호칭만 선생님이지 실제로는 친구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팀보다 친근할 거 같네요.

김하진 하이디 친화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항상 좋았어요. 같이 멘토링 할 때 편해요. 함께 뭉치면 친구들과 노는 것 같아요. 팀워크가 좋다고 말해야 하나? 다들 긍정적이라 더 좋고요!

손수아 하이디 다른 팀도 그렇겠지만 긍정적인 에너지와 단합력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작 전 간단한 사람으로 분위기를 풀고 우리만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즐겁게 수업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요. 뭉쳤을 때 나오는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는 우리 팀만의 장점이죠!



김하진 하이디



손수아 하이디



하수진 하이디

하수진 하이디 하이샘은 이해하기 쉽게 엄청 잘 알려주세요!

**Q. 처음 만난 날의 분위기와 기분은 어땠나요? 매주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서윤지 하이샘 첫 멘토링에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무겁게 느껴져서 많이 긴장했는데, 하이디들이 웃음이 많아서 엠비티아이를 주제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눴어요. 항상 즐거운 멘토링을 만들겠다는 처음 마음가짐과는 달리 하이디에게 영어 개념을 확실히 이해시키기 위해 같은 내용을 몇 주째 반복하며 지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마침내 하이디가 “선생님, 이해했어요!”라고 말한 순간이 기억 남네요. 선생님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김하진 하이디 처음 만난 날이 기억에 남아요! 세 번째 하이샘을 만나는 거라 이번에는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여자 분이실까? 남자 분이실까? 이런 생각을 하며 들뜬 기분이었는데 마침 돈까스를 먹고 있어서 먹방을 찍어버렸습니다.(머쓱)

손수아 하이디 초면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어색함이 컸지만, 앞으로 1년을 같이 지낼 분들이라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작년 멘토링은 학습 위주의 수업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중간중간 쉬는 팀으로 영화나 보드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어요.

하수진 하이디 같이 루미큐브 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랑 언니들이 그렇게 루미큐브를 잘하는 줄 몰랐거든요!

**Q. 멘토링 활동이 어렵고 고단했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서로 어떻게 극복했나요?**

서윤지 하이샘 하이디가 멘토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산만할 때 당황스러웠어요. 선생님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주간 활동 보고서에 작성했어요. 그러자 사무국에서 조언을 해줬어요. 조언을 듣고 하이디들과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편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하이샘이라고 혼자서만 고민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어요.

김하진 하이디 전 없었어요!

손수아 하이디 ‘멘토링 활동이 어렵고 고단했던 때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지만, 굳이 생각해보자면 기분이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별로였던 날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친절한 하이샘과 함께 수업하던 하이디 친구들의 유쾌함 덕분에 저절로 극복된 것 같아요.

하수진 하이디 너무 슬퍼서 제가 운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어색함을 없애고 서로의 MBTI를 알아보는 수업도 진행했다.

Q. 내가 하이섬·하이디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텐데, 함께라서 해낸 일도 있을 것 같고요.

서윤지 하이섬 위에서 언급한 하이디가 영어 개념을 완벽히 이해한 순간이 가장 부듯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문제를 푸는 데에 10분이 넘게 걸렸던 하이디가 마지막엔 족석에서 영어로 작문을 했을 때 정말 부듯하더라고요.

김하진 하이디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문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장학금 카드로 학원비 결제할 때, 보드게임에서 이겼을 때 부듯했어요! 하이섬이 잘 알려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 같아 좋았고요.

손수아 하이디 친구들을 만나서 물건을 살 때, 내미는 하이원 카드 덕분에 부듯했던 순간이 많았죠! 부모님이 제가 하이원 장학생이라고 지인에게 자랑하실 때도요. 혼자서라면 하지 못할 일을 함께 라서 해내는 건 아무래도 멘토링 때 함께 공부하는 일 같아요. 독학했다라면 공공 앞을 공부해 똑똑하신 하이섬과 하이디 친구 덕분에 해쳐나가기 그만큼 든든하고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하수진 하이디 제가 조금씩 영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었을 때가 가장 부듯했어요

Q. 나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서윤지 하이섬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저에게 발판이었습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시작으로 여러

대외활동에 더 열의를 갖고 도전할 수 있었고, 장학금이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기도 했거든요.

김하진 하이디 마지막 장학 활동이었어요. 이제 강릉으로 가서 기회가 또 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 동생을 만나서 다행이고 감사했어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 있어서 학원을 다닐 수 있었고, 덕분에 가고 싶은 고등학교도 가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만약 미래에 제가 큰 성공을 한다면, 그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활동이지 않을까요.

손수아 하이디 가히 나의 중학교 시절을 책임져 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곁에서 할 수 있는 게 공부뿐이었는데, 돈 걱정을 크게 덜어준 고마운 존재거든요. 성인이 돼서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다시 한번 지원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기회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수진 하이디 나한테 용기를 준 곳!

Q. 함께한 하이디·하이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윤지 하이섬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빠짐없이 성실하게 멘토링에 임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김하진 하이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이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수아 하이디 끝까지 책임 지고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년 동안 함께 해온 김하진 하이디와 하수진 하이디에게도 수고 많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다들 다음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ㅜㅜ

하수진 하이디 선생님 덕분에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Q.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대 이유와 함께 빈칸을 채워주세요!

서윤지 하이섬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추억]이다! 대학 생활에 적응하며 지쳐 있던 저에게 하이디들과의 만남은

순수함을 통해서 학창 시절 추억을 돌아볼 수 있는 창구였거든요. 멘토링을 할 때마다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친구를 만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김하진 하이디 [기회 opportunity]. 제 꿈의 한 부분을 완성해주어 앞으로의 꿈을 채울 수 있게 됐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수아 하이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친구]다! 방학 동안 선행을 하고 친구들을 앞질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독학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를 많이 덜어주고 도움을 주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수진 하이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선생님]이다! 이유는 나에게 조언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다.

Q. 내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이원 멘토링 장학과 관련된 이야기도 좋고 나에 대한 이야기도 좋아요!

서윤지 하이섬 더 나은 국제 사회를 위해 달리고 있을 저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은 상상할 수 없지만, 소외되어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 손을 뻗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김하진 하이디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성공한 기업의 CEO가 제 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손수아 하이디 아예 상반된 두 가지 미래를 상상하고 있어요. 하나는 원하던 대학을 들어가고, 원하던 꿈을 이루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다른 하나는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앞으로의 일에 불안함을 안고 사는 것. 가끔 환경이 비정상적으로 더워지거나 추워져, 인간이 버티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도 상상하고 합니다. 이걸 다 같이 힘을 내야 행복한 미래로 바꿀 수 있겠죠!

하수진 하이디 미래에 저는 엄청 행복하게 일하고 있을 거 같아요!

More TALK

Ask 하이섬

Q. 하이디 덕분에 나는 이런 점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서윤지 하이섬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저와 비슷한 진로나 전공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진로와 전공에 대한 고민에 갇힌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저에게 하이디들과의 멘토링 시간이 환기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이디들과 우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을 털어내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디에게 서로 한마디.

서윤지 하이섬 다음에 만나면 더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수아, 하진이는 고등학교 적응 잘하고, 수진이는 마지막 중학교 생활 잘 마무리하면서 건강히 보내주세요!

Ask 하이디

Q. 같은 지역의 대학생인 하이섬 덕분에 이런 부분의 궁금증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김하진 하이디 영월에서의 대학 입시에 대해 알게 된 거요.

손수아 하이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스터디 메이트)은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 살 확률도 적고, 잘해 봤자 우물 안 개구리일 것이라는 불안감만 맴돌고 있을 뿐이었는데 실제로 영월 출신의 하이섬이셔서 궁금증도 해결하고 나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어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섬에게 서로 한마디!

김하진 하이디 쌤 그때가 되면 아마 전 성인일텐데 술 사주세요! 매우 설레네요. 어른이다 나도!

손수아 하이디 다시 만나게 된다면 반가운 마음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사석에서 한 번 더 뵈 때도 웃는 얼굴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겨주세요.

하수진 하이디 신기하면서도 기분 좋을 거 같아요

심찬혁 하이샘

이중호·전현정·이혜은 하이디 열정으로 똘똘 뭉쳐 하나된 팀



심찬혁 하이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심찬혁 하이샘 안녕하세요. 강원도 삼척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고,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 중인 심찬혁 하이샘입니다.

이중호 하이디 삼척에 살고 있는 이중호입니다. 장래희망은 회계사이고 올해(2022년) 대구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합니다!

이혜은 하이디 삼척에 사는 이혜은이라고 합니다. 아직 장래희망이 많아 탐색 중이지만, 경영학과를 희망합니다.

전현정 하이디 강원도 삼척시에서 살고 있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전현정입니다.

Q. 지원부터 선발까지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심찬혁 하이샘 전역 후 작년 5월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및 선발 기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어떤 하이샘이 되고 싶은지, 제가 고등학생일 때 무엇이 필요했는지 과거를 되짚는 시간을 꽤 오래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서 기억에 남나 봐요.

이중호 하이디 처음엔 장학금 때문에 신청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신청할 때에는 멘토링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하이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그 과목을 포기했고, 다른 하이샘을 만나 다시 많은 것을 배우며 도전했거든요.

전현정 하이디 작년에 좋은 기회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가 너무 좋아서 올해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Q. 우리 팀 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뭉치면 생기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심찬혁 하이샘 각자의 관심 분야에 큰 열정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중호는 경제 시사 문제에, 혜은이는 입시 문제, 현정이는 문화생활과 관련된 얘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이디들의 관심사는 저도 고등학생 생활을 하거나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졌던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뭉치면 말이 잘 통하고, 공감대 형성이 원활하게 이뤄졌어요. 이게 큰 장점이지요. 가끔씩 하이디들이 공부하기 힘들어 할 때, 서로의 관심분야에 대해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환기하곤 했습니다.



이중호 하이디 다른 하이디 분들과는 다같이 하는 첫 오티와 디자인씽킹 때에만 만나서 잘 모르지만, 함께하면 서로서로 조금씩 의견을 나누고 들어주는 것을 잘하는 거 같습니다.

이혜은 하이디 멘토링 시간마다 하이샘에게 다른 하이디의 멘토링과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으며 서로 조금씩은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면 어색해 하다가도 은근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었죠.

전현정 하이디 저희 팀은 가장 열심히 하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팀들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팀이 매사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팀이라고 자부합니다.

Q. 처음 만난 날의 분위기와 기분은 어땠나요? 매주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심찬혁 하이샘 서로 어색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저는 떨림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하이디들이 수업을 더 하자고 먼저 얘기해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아마도 제 수업이 재있었거나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서 부듯했거든요.

이중호 하이디 처음 만난 날에는 다들 낯을 가려서 조용했지만 떨렸어요. 매주 활동하면서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평소엔 이런 대화를 나눌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멘토링을 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얻을 수 있었죠.

이혜은 하이디 낯을 가리는 편이지만 그래도 나름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주 활동하면서 지난주는 어땠는지 거의 항상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와 그런 얘기를 하고 공유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전현정 하이디 선생님들이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매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역시 선생님이 5만원이나 하는 갤럭시탭 펜을 잃어버리고 새로 사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매~우 즐거웠습니다.

Q. 멘토링 활동이 어렵고 고단했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서로 어떻게 극복했어요?

심찬혁 하이샘 하이디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전현정 하이디



이혜은 하이디



결석도 거의 없이 참여해줘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수업 준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경제, 입시, 문화생활 등 여러 하이디의 관심 분야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위해 어떤 주제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매주 준비할 때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를 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럴 땐 하이디들에게 궁금한 내용을 먼저 물어본 이후 해당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곤 했어요.

이중호 하이디 제일 어려웠던 것은 시간 조절인 거 같습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서로 할 일의 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서 안 맞을 때도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하며 맞는 일을 찾아 조율하곤 했어요.

이혜은 하이디 작년은 학교활동과 학업 외에도 대외활동을 늘렸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버거웠고, 멘토링을 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현정 하이디 제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하기 싫어할 때 하이샘이 먼저 눈치를 채시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Q. 내가 하이쌤·하이디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텐데, 함께라서 해낸 일도 있을 것 같고요.

심찬혁 하이쌤 현정 하이디가 확률과 통계 시험을 잘 봤다고 말해준 날 되게 부듯했어요. 현정이가 이전에 수학이 어렵다는 얘기를 가끔 했는데, 막상 현정이랑 수업하다 보면 문제를 엄청 잘 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개념 설명을 많이 하려 노력했고, 개념 유형별 문제마다 나눠서 푸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고맙게도 현정 하이디가 잘 따라와줬고, 작년 2학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말해준 게 참 부듯했습니다.

이중호 하이디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부담되지 않게 구매했을 때 기뻐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이 있어도 부모님께 부담이 될까 참았는데 장학금으로 샀을 때 행복하면서도 부듯했습니다.

이혜은 하이디 학업의 힘든 부분을 도와주니 추진력이 생겨 문제집을 끝내는 등의 계획을 더 쉽게 완수할 수 있었어요!

전현정 하이디 스스로도 공부를 잘 못한다는 것을 아는데, 하이쌤이 한 문제 풀 때마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하이쌤이 아프신 날에도 잠깐이라도 수업을 할 만큼 항상 수업을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그에 상응하도록 열심히 참여하려 했어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쌓여서 그런지 다른 팀보다 출석률도 좋고, 항상 수업을 즐기면서 지루하지 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Q. 나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어떤 의미였나요?

심찬혁 하이쌤 면접볼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멘토링 하면 개인 시간이 부족해질 텐데 괜찮겠냐'라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평소에 시간 관리를 잘 하던 편이라 조금만 더 성실해지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더 열심히 살았어요. 술 덜 먹고, 게임 덜 하니 시간이 충분했어요. 멘토링을 안 했을 때보다 이런 것도 더 많은 거 같아요. 학점도 잘 받았고, 학술제 팀장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대외활동도 했거든요. 그 런 점에서 멘토링은 더 사람 답게 살 수 있도록 성장시켜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이중호 하이디 고3을 마무리하며 대학 결정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얻어가는 것도 많아 굉장히 좋은 의미였습니다.

이혜은 하이디 저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큰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고등학생 시기에 함께 해서 더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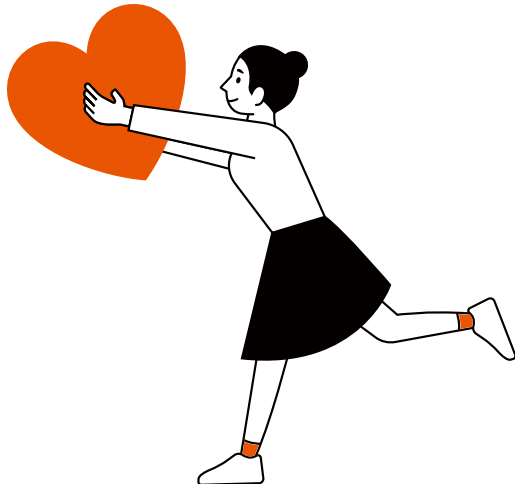
전현정 하이디 정말 즐거웠습니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아닌, 서로 즐기면서 보내서 시간도 굉장히 짧게 느껴진 것 같고요.

Q. 함께한 하이디·하이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심찬혁 하이쌤 너희가 믿고 따라와줘서 10개월의 긴 멘토링을 잘 마무리하게 됐다. 수업도 잘 들어주고, 쌤이 참 의식의 흐름대로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매번 좋은 반응 보여줘서 고마웠어. 중호는 이제 대학 가서 행복하게 새내기 생활하고, 혜은이랑 현정이는 쌤보다 더 좋은 하이쌤(없을 수도 있지만^^)만나서 내년에도 열공하고 좋은 대학 합격하자~! 10개월 동안 고마웠어 우리 하이디들!

이중호 하이디 하이디분들은 고3, 1년 동안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이쌤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혜은 하이디 수학 문제 잘 가르쳐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전현정 하이디 선생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로아에서 만나요!

Q.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다! 이유와 함께 빈칸을 채워주세요!

심찬혁 하이쌤 10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멘토링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러닝메이트]라 지어봤어요. 하이디들과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 있었기 때문에 10개월간 이렇게 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중호 하이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추억]이다! 멘토링을 하면서도 많은 추억이 생겼고 기억에 남는 것도 많아서요!

이혜은 하이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비타민]이다! 멘토링 활동과 프로그램이 저에게 활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현정 하이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영양제]다. 삶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해진다면 인생이 더 튼튼해지고, 내게 더 든든한 존재가 되니까!

Q. 내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이원 멘토링 장학과 관련된 이야기도 좋고 나에게 대한 이야기도 좋아요!

심찬혁 하이쌤 보람찬 일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문득 '내가 몇 십억, 몇 백억이 있으면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은 행복할지 몰라도, 돈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보람찬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꾸준히 멘토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직장을 그런 분야로 잡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중호 하이디 하이쌤이 되어서 받은 만큼 하이디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대학생활이 끝나고 취업하면 꿈을 이루 돈을 많이 버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현정 하이디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에게 어울리는 자리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ore TALK

Ask 하이쌤

Q. 하이디와 함께 멘토링 한 경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심찬혁 하이쌤 저는 중호 하이디랑 수업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중호는 상경계 진학과 더불어 수능 경제 과목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경제 이론과 시사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경제학과인만큼 경제 얘기도 많이 했어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IMF,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 테이퍼링 등 다소 심오한 주제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중호가 매주 어떤 질문을 들고 올지 몰라 이전에 수강했던 경제학 수업을 복습하면서 경제 지식을 보충할 수 있었어요.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디에게 서로 한마디.

심찬혁 하이쌤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TO 하이디들. 쌤이 다시 만나면 맛있는 거 사 줄게. 뭐 먹고 싶은 지 생각해두렴!

Ask 하이디

Q. 같은 지역의 대학생인 하이쌤 덕분에 이런 부분의 궁금증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이중호 하이디 하이쌤에게 대학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하이쌤 전공이 제가 가려는 과와 비슷해 과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수능 후 생활, 대학 생활은 물론 경제 시사 이야기까지 나누며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어요!

전현정 하이디 선생님이랑 게임 얘기를 자주 했는데, 하이쌤 덕분에 게임 이벤트나 행사에 관한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다시 만날 미래의 하이쌤에게 서로 한마디.

이중호 하이디 아직까지 실제로 만나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직접 만나게 되면 신기할 거 같고 반가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만나게 되면 같이 밥도 먹고 놀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으로 달리고 싶어요”

고연탁 하이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에 정선 지역 하이쌤으로 활동한 고연탁입니다. 현재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Q. 어떤 계기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지원했나요?

친한 친구에게 하이원에서 멘토링 장학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동급생 멘토링 활동을 해왔기에 자연스럽게 그 소식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의 대상이 제 중고등학생 시절 배경과 비슷한 지역의 학생들이 멘티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환경적인 부족함, 여전히 존재하는 부족함(교과 보충, 진로 상담, 전공자 상담 부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지원하였습니다.

**Q. 담당한 하이디 친구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디들과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제가 담당한 하이디는 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은 김현준, 장한결 하이디입니다. 두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같이 학교 다니면서 친해지는 친구나 선배, 선생님처럼 가까워진 것 같네요. 매주 꾸준히 수업 시작 후 10분, 수업 끝나고 10분~20분 정도 사담을 나누는 것이 친해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멘티들과 근황을 나누면서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기도 하며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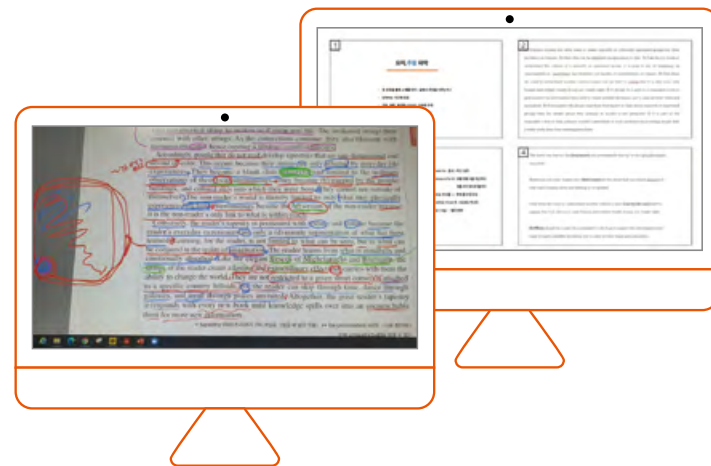
Q. 구체적으로 어떤 멘토링 활동을 했나요?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에 예비장학생은 교과보다는 다른 활동적인 면을 보충해주거나 정서적인 부분 위주로



멘토링을 하면 될 것 같다는 가이드라인을 받았었는데. 근데 막상 멘토링을 시작하고 하이디들과 이야기해보니 교과 멘토링을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실기 준비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적지만, 그 시간을 집중해서 알차게 활용했어요. 각자 상황에 맞게 입시 전략도 어느정도 계획해서 준비하는 하이디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멘토링은 학습, 정서, 진로, 게임 등을 진행했어요. 학습은 주로 수능 영어 기출문제 풀이와 어렵다는 평이 많았던 2022 수능특강을 바탕으로 영어 교과수업을 했어요. 수업은 근황 이야기, 영어 멘토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3가지 파트로 진행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교과목들도 원한다면 질의응답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했구요. 정서 멘토링은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수업 후부터 하이디들이 원하는 시간 언제고 할 말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함께 지문 풀이를 하고 오답 단어장을 만드는 등 지루함을 타파하기 위한 고민을 담은 수업자료들.



Q. ‘하이쌤’이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하이디들과 작품공유를 하면서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작업물을 아카이빙 해놓은 하이디의 비공개 계정을 맛팔로우하고, 하이디가 공모전에 제출할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가 공모전에 출품했던 작품을 하이디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감상도 들었어요. 자기 작품을 남에게 보여주는 게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그만큼 신뢰가 쌓였고 많이 가까워졌다는 걸 실감한 순간이었거든요. 작품을 공유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년에도 멘토링을 한다면 저랑 다시 하고 싶다는 말을 해주서 감동도 받았고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디자인씽킹도 해보고 간담회도 가보고 수업도 들어보았지만 하이쌤으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제나 하이디들과 수업을 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Q.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멘토링 활동이 이전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하이디들과 꾸준히 수업을 하며 바쁜 일상을 환기하고, 내가 조금 더 관찮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덕분에 대학생 멘토링이라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폐광지역 출신 대학생으로서 비슷한 환경에 있던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제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베푼다는 것에서 봉사정신도 기를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Q. 사무국의 어떤 지원이 특히 든든하다고 느껴졌나요?

다양한 가이드 라인과 멘토 교육을 제공해주셔서 멘토링에 대한 부담을 덜고, 올바른 마음을 갖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 매주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메일이나 카카오톡 정보도 유용했어요. 장학금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구요. 멘토링 활동과 동시에 제공되는 장학금은 제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데 부담을 줄여주고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한 단단한 기반이 돼 주었죠.

Q. 함께한 하이디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멘토링을 하면서 본 여러분은 미래를 진지하게 꾸준히 고민하고 행동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선택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술적, 학업적 능력 모두 뛰어난 여러분이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맛있는 사람이 될 지 기대가 큼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주변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스스로에 실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Q. 나는 []이 되고 싶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모든 것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배우기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심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배우며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윤지성 하이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선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윤지성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Q. 어떤 계기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지원했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제가 학창시절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려움을 하이디들은 겪지 않도록 조언해주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입시 선배 또는 인생 선배로서 고등학교 하이디들의 상담에 자신도 있었고요. 면접에서 다른 하이샘분들이 말을 잘 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살짝 걱정했는데, 다행히 합격해서 더 열심히 멘토링 활동을 했죠.

Q. 담당한 하이디 친구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디들과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저의 하이디들은 삼척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친해지기 위해 스몰 토크로 대화를 진행했고 멘토링 시작할 때 바로 수업에 들어가기보다는 대화를 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 후에 진행했어요. 또 하이디들이 힘들어하는 주엔 mbti검사, 고민 상담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했구요.

Q. 어떤 멘토링 활동을 함께 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려줄 수 있나요?

주로 학습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기본에 하이디들이 원하는 과목을 함께 진행했구요. 미리 공부하고 알려주는 과정 속에서 저 역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멘토링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Q. '하이샘'이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하이디가 자격증에 합격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 온 순간입니다. 하이디와 열심히 자격증 준비를 했거든요. 합격했으니 너무 기쁘고 부듯했죠.

Q.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 후기를 들려주세요.

멘토링을 진행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매주 하이디들과 멘토링을 하며 성장하는 것을 느낀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엔 디자인씽킹과 하이샘들과의 간담회가 기억에 남네요. 디자인씽킹을 통해 하이디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간담회를 통해선 평소 고민을 다른 하이샘과 나눌 수 있었거든요. 다른 하이샘이 자신의 하이디가 기계공학과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해서 제가 함께 줌으로 학과에 대해 알려준 것도 기억 나네요.

Q.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많은 부분이 향상됐지만, 특히 인내심이 늘었어요. 만약 하이디가 지각을 했다면, 예전의 저라면 아마 왜 지각했는지 이유부터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음부터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됐죠. 그 덕분에 하이디도 다음부터 지각하지 않았구요.

Q.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무국의 어떤 지원이 특히 든든하다고 느껴졌나요?

하이원 멘토링을 한 주, 한 달씩 마무리할 때마다 성장일기를 기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서

주도하는 직장인들(사회인 멘토)과의 만남과 하이샘들의 간담회는 멘토링 활동에 더 힘을 내게 해준 비타민 같은 존재였어요. 사무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멘토링 활동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을까 싶어요.

Q. 함께한 하이디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1년 동안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내년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파이팅 넘치는 시간 보내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밥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Q. 나는 []이 되고 싶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남을 돕는 인재]가 되고 싶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하며 남을 돕는 즐거움을 배우게 됐어요. 특히 하이디를 도우며 하이디보다 제가 더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 남을 돕고, 정선 지역 아이들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네요.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김채현 하이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태백지역 하이샘 김채현입니다! 하이샘들에게 과도하게 열정을 보이는 열정형 ESFJ 하이샘이에요! 자연과 숲을 좋아해서 미래에도 푸릇한 자연에서 보낼 수 있게 산림자원학과에 다닙니다!

Q. 어떤 계기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지원했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폐광지역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멘토링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자체에 마음이 끌렸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무슨 질문이 나올지 고민하면서, 가족, 친구들과 모의 면접을 보며 연습했던 그 순간의 열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Q. 담당한 하이디 친구들 소개도 부탁해요. 하이디들과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5월부터 지금까지 함께 한 중학교 2학년생 하이디 2명이 있고, 2월부터 같이한 중학교 1학년 하이디 이렇게 총 셋입니다. 2학년 하이디들은 이미 서로 친구였기에 분위기가 좋아서 무리 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1학년인 하이디와는 관심사를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중입니다.

Q. 어떤 멘토링 활동을 함께 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려줄 수 있나요?

저는 '뉴스 스크랩'과 '학습멘토링-과학'을 진행합니다. 하이디들이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중학생 때부터 상황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자신 있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하는 바람과 뉴스를 보는 눈을 길러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변별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학습 멘토링은 하이디들이 원하는 과목인 과학을 진행합니다. 어려운 개념은 재밌는 영상과 함께 배우면서 문제를 풀고 하이디들이 질문하거나 모르는 문제는 모두다 이해할 수 있게 다같이 천천히 배워갑니다. 하이디들과 했던 멘토링 중 반응이 좋았던 건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그림으로 그리기'였어요. 영화를 보고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자신이 생각한 영화의 의미를 그리면서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 하이디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감상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멋진 그림 실력까지 알게 돼 하이디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Q. '하이샘'이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디자인씽킹 프로그램에서 감사하게도 저희 팀 아이디어가 뽑혀서 강원랜드에서 하이디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하이디들이 쌤이랑 오길 너무 잘했다고 재밌었다고 방방 뛰면서 말해줬던 순간이 아주 부듯하고 기억에 남아요. 저희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고 말해줬을 때 하이디들이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참여 못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설득해서 강원랜드에 갔었거든요.

Q.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 후기를 들려주세요.

꿈키움페스티벌에 참여해 저의 학과를 소개할 때 하이샘이라서 행복했습니다! '이색학과'라는 주제 안에 산림자원학과가 속해 있어서 학생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거라 걱정했는데,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학과 발표 후 질문 시간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반응하며 소통해줘서 느꼈던 행복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청소년들이 눈을 넓히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Q.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를 소개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하다보니 생각하는 관점을 넓힐 수 있었고 다양한 시도도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Q.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무국의 어떤 지원이 특히 든든하다고 느껴졌나요?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2020년과 동일하게 든든한 기동 자체였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하이디들에게 가르치는 방향이 옳은 지 고민할 때, 뒤에서 든든히 하이샘을 믿고 응원해주는 사무국 분들 덕분에 하이디들에게 자신 있고 알차게 멘토링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를 다니면서 금전적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서 하고자 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Q. 함께한 하이디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안녕, 5월 초여름부터 시작해서 2월 겨울의 끝자락까지 쌤이랑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의 하이디들이 너희라서 정말 행복했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 너희는 앞으로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잘 이룰 거야. 행복하자~!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화를 보고 느낀 점 그림 그리기' 수업 자료들. 하이디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Q. 나는 []이 되고 싶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나는 [긍정적이고, 공감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 하이디들을 가르치며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하이디들을 이해하게 됐고 결국에는 하이디들도 저의 마음을 알아줘서 상황이 잘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해서 해결한 이런 경험을 떠올리면 저는 제가 원하는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꿈을 향해 한발 점프하는 법 알게 됐죠”

이다은 하이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강원도 태백에서 자란 이다은 하이샘입니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학창시절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교육학과에 진학하지 못해 꿈을 접어야만 했는데, 우연히 하이원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을 알게 돼 잊고 있던 꿈을 조금씩 실현하는 중입니다!

**Q. 어떤 계기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지원했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대학교 1학년 때 하이원 장학 사업에 참여했는데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신선한 충격도 받았죠. 이후 하이원 장학 프로그램이 멘토링도 함께 진행하게 되면서 교사의 꿈을 가졌던 저에게 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지역 친구와 함께 지원해 서로 면접 문제를 나누며 모의 면접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Q. 담당한 하이디 친구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디들과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제가 담당한 하이디들의 이름은 박수연, 전보경입니다. 제가 두 친구를 만났을 때는 모두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죠! 한창 예민할 시기에 만나 편하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진 않았지만, 하이디들이 저와 보내는 시간이라도 힐링이 됐으면 싶어서 편하게 대화하려고 했어요. 직접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 하이디들에게 진정한 제 모습을 보이려 더 노력했죠.



Q. 어떤 멘토링 활동을 함께 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려줄 수 있나요?

학습, 정서, 진로 멘토링 모두 진행했어요. 학습적으로는 수능 사회탐구 개념 공부 및 미디어 관련 기본 개념 수업을 했고, 진로는 자기소개서를 봐주거나 입시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며 멘토링 했죠. 또 영화를 보거나 그림 일기 쓰기, 사회 이슈 토론하기, 음악 추천해주고 감상하기 등 오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서 함양을 위한 수업도 진행했어요. 특히 2학기에 접어들면서 학습적인 내용을 다루기 어려워 정서 멘토링에 더 집중했었고요.

Q. ‘하이샘’이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하이디가 원하던 대학 합격 소식을 들려줬던 때요! 가까워서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제 역량이 다하는 데까지 입시를 응원한 만큼 정말 부듯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이샘으로서 하이디들의 대학 합격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Q.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 후기를 들려주세요.

가장 최근에 한 ‘서로의 초상화 그리기’ 정서 멘토링이 기억에 남네요. 그동안은 수업을 완수하려는 마음 때문에 하이디와 진심 어린 소통을 못 한 것 같아요. 예전보단 여유가 있는 요즘엔 하이디들과 초상화 그려 주기 수업을 하고 그린 그림을 주고받는데, 마음 한 칸이 따끈해지면서 ‘하이샘 되길 참 잘했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Q.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야 할 말은 무리 없이 전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멘토링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이디들에게 조언이나 당부를 하고 싶어도 혹시 잔소리로 들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느라 우물쭈물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찾아오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속상한 감정은 최대한 오래 갖지 않기! 해야 할 말은 딱 한 번만! 단 감정을 신지 않고!’ 멘토링이 끝나는 시점에 저에게 남은 소중한 다짐입니다.

Q.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무국의 어떤 지원이 특히 든든하다고 느껴졌나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저의 2021년을 열정으로 가득 채워줬어요.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건 정말 어렵죠. 하지만 덕분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 하고 싶었던 수업을 진행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쳤던 순간엔 언제나 사무국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잘 버틸 수 있었어요.

Q. 함께한 하이디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애들아 안녕! 다은 하이샘이야. 너희를 봄에 처음 만났는데 벌써 새로운 봄을 맞이할 때가 되었네. 나도 하이샘은 처음이라 수험생인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매번 고민만 하다가 8개월이 지나간 것 같아. 작년에 외부 상황으로 인해 지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너희와의 수업에서 항상 힘을 얻었어. 너희에게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아 참 든든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야.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된 너희가 대학이라는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갈 생각을 하니 참 흐뭇하다! 누구보다 잘 해낼 너희이기에 걱정 따윈 하지 않는다! 대학에 가서는 더 멋진 학생이 되고, 또 누군가의 든직한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도 너희의 빛나는 청춘을 응원할게. 고생 많았어, 애들아!

Q. 나는 []이 되고 싶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저는 [꿈 많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워낙 도전을 두려워하는 성격이라, 그동안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려했어요. 직업을 정할 때도 그랬고요. 하지만 하고 싶은 것 많고 도전정신 강한 하이디들과의 만남은 과거의 저를 반성하게 만들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제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 지 열심히 고민해보고 망설임 없이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최선을 다해 이루고 마는 끈질긴 어른이 되려고요!



흥미를 유발해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든 수업 자료들. 서로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수업은 특히 인기가 좋았다고.

“받은 만큼 돌려준 기억으로 더 책임감 있는 어른 될래요”

유나겸 하이섬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하는 유나겸입니다. 영월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현재 영월 하이드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하이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참여했던 ‘하이원 원정대’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서 그걸 나누고자 2019년도엔 ‘하이원 드림원정대 대학생 멘토’로 참여했거든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생’으로 하이원과 함께 하고 있고요!

**Q. 어떤 계기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지원했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대학생이 되고 스타강사 조교로 일하며 여러 영상에 출연하고, 교재에 실릴 글을 쓰며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러다 문득 제가 가진 정보와 지식을 고향 후배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원도 영월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만큼, 열악한 교육환경과 문화시설로 인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로 인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고향 후배들 만큼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Q. 담당한 하이드 친구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드들과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하이드 친구들은 영월에 거주 중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먼저 고1이 되는 하이드부터 소개하자면, 단양에 있는 관광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해요. 호텔경영 쪽에 관심을 갖고 영어도 미리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중3에 올라가는



하이드는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뷰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친구와 수업하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하이드들과 친해지려고 MBTI 검사를 함께 해봤어요. 아무래도 결과를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 얘기를 하다 보니 공감대가 빨리 만들어진 것 같아요.

Q. 어떤 멘토링 활동을 함께 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려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국어와 역사 과목 강의 경력이 많다 보니 국어와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고요, 하이드들이 학교 성적을 올리고 싶어해 내신 대비 수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매번 수업만 진행한 건 아니고, 당연히 하이드들과 수업 전후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며 정서 및 진로 멘토링도 진행했어요. 특히 정서 및 진로 멘토링을 진행할 때, 제 경험을 많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 하이드들이 하이섬의 경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전공을 살려 만든 한국어 수업 자료.



매주 멘토링 활동을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총평도 진행했다.

Q. ‘하이섬’이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실질적으로 하이드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순간이 가장 부듯했던 것 같아요. 국어 내신 대비 수업을 할 때 중3이던 하이드가 “시험에서 선생님이 나올 것 같다고 한 게 90%는 나왔어요!”라며 시험 잘 봤다고 이야기해줬을 때 정말 부듯하더라고요.

Q. 내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 후기를 들려주세요.

하이섬 간담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멘토링을 하다 보면 동료 하이섬들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거든요. 간담회에 참여해서 동료 하이섬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멘토링 팁도 공유하고,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맛있는 간식은 텀 ㅎㅎ)

Q.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아무래도 책임감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재학 중이다 보니 수업도 들어야 하고 멘토링도 해야 해서 할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성격상 뭐 하나 대충 할 수 없는지라,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더 강해졌어요!

Q. 함께한 하이드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민채야, 슬비야 안녕! 먼저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을 섬과 함께 보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학교 끝나고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 매번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주던 너희 모습이 생생하다! 무엇보다 스케줄 조정할 때 늘 적극적으로 대답 잘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런 너희 덕분에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수업하고 나면 되레 섬이 더 힘을 얻고, 좋은 기운을 받았던 것 같아. 섬이 자주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될’ 해도 ‘될’ 사람이니까 조금씩 하지 말고 지금을 즐겼으면 좋겠어. 그 과정에서 고민이 생기거나 힘들면 언제든지 섬을 찾아와도 돼! 섬은 언제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함께 할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늘 몸 건강, 마음 건강인 거 잊지 말기!

Q. 나는 []이 되고 싶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사회의 마이너리티를 향하는 사회부 기자 및 앵커]가 되고 싶어요! 저는 ‘임팩트’를 중시해 본질을 흐리는 기자가 아닌, 진실된 취재와 보도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과 소통하며 ‘팩트’를 중시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엔 제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을 설립해 제 모교를 비롯한 폐광지역 학생들에게 제 이름으로 장학금도 지급하고 싶고요. 문화시설과 교육시설이 열악한 곳에서도 강원랜드가 주최한 여러 프로그램 덕에 많은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과 사회에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조금 느리더라도 완주하는 법 배웠죠”

이수련 하이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영월군에 거주하고 있는 이수련 하이샘입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 상담심리를 전공, 사회복지를 복수전공하고 있어요. 친구 권유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Q. 어떤 계기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지원했나요?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장학금 수여 조건으로 멘토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사회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Q. 담당한 하이다 친구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다들과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제가 담당한 하이다는 총 세 명으로, 2021년 기준 고3인 여자친구 한 명, 중3이던 남자 친구들 2명이었어요. 낮을 좀 가리는 성격이라 멘토링 시작 전엔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OT 겸 간단한 게임을 준비했었어요. 준비한 게임 중 하나가 '진진가'였는데, 저는 아이들의 진진가를 잘 가려냈는데, 하이다 친구들이 저의 진진가를 잘 가리지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게임 덕분에 어색한 분위기를 좀 덜 수 있었어요.

Q. 구체적으로 어떤 멘토링 활동을 함께 했나요?

학기 중과 방학을 나눠서 다르게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학기 중엔 세 하이다들 모두 학습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1학기에는 시험을 대비해 그동안 배운 내용에 관한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등의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는 디자인씽킹 프로젝트와 함께 진로 탐색 시간을 가졌습니다. 커리어넷 등의 사이트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먼저 진로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맞춰 직업 탐색의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2학기 들어선 다시 학습 멘토링을 했죠. 고3 친구의 경우 수능을 대비해 문제집이나 역대 수능 기출 문제 등을 함께 풀어봤어요. 물론 고3 친구의 힘든 마음이나 고민을 들어주는 등의 정서적인 지지도 함께 보내려 했어요.

Q. '하이샘'이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고3 하이다 친구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힘든 마음이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던 것이 부듯했습니다. 고3시절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또한 주위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과 달리 하이다에게 온전한 응원과 지지를 보낼 수 있어서 하이다 친구도 멘토링 시간에 속마음을 잘 이야기해 준 것 같고요. 수능 전 주에 중요한 시험 전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의 유튜브 동영상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동영상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며 하이다가 자신의 불안감과 걱정을 담담하게 털어놓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Q.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 후기를 들려주세요.

디자인씽킹 프로젝트는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조금 힘들었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방법에 대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때 얻은 지식과 경험을 실제 제 생활에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키움 페스티벌은 다른 하이샘을 만날 수 있던 기회라서 좋았어요. 제 또래인, 혹은 저보다 동생인 친구들이 모두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 하이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Q.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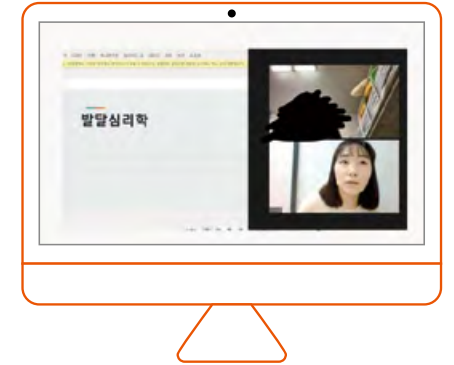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매주 멘토링이 진행되어야 하고 매주 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는 일정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자기성장 기록을 제출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멘토링 외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가해야 했죠. 이런 일정과 규칙은 책임감과 계획성을 길러줬어요.

Q. 사무국의 어떤 지원이 특히 든든하다고 느껴졌나요?

사무국에서 매주 메일을 보내줘서 보고서나 사회인 멘토링 신청 등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메일 속 다른 하이샘들과 하이다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멘토링 아이디어도 얻고, 격려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이샘들이 긴 멘토링 기간을 잘 지나올 수 있던 배경에 사무국의 노력이 있었기에 저처럼 게으른 사람도 완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함께한 하이다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1년 동안 부족한 하이샘에게 힘과 격려가 되어준 친절한 하이다, 동희야. 대학에 입학한 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순간을 응원할 거야.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3 하이다 친구들, 안녕 성은, 예훈! 1년 동안 많은 웃음을 줘서 고마워! 너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모르겠지만, 참 귀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예훈이 너는 항상 똑 부러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잘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도



학습과 정서 모두 도움을 주려 노력했던 학습 자료들.

학업이든, 동아리든, 뭐든 잘 해낼 것이라고 믿어.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고, 내가 본 너는 그만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그러니 고등학교 가서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성은아! 너처럼 타인의 기분을 잘 살피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이걸 정말 큰 장점이니 꼭 알아주면 좋겠다! 공부든, 진로탐색이든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잘 할 수 있으니 고등학교 가서는 꼭 체력을 기르길! 충분히 할 수 있어, 화이팅!

Q. 나는 []이 되고 싶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나는 [탁월한 동기부여가, 혹은 서포터]가 되고 싶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하이샘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졌어요”

김민희 하이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인문학부에 입학해 국어국문학 전공, 정치외교학과 수료를 앞둔 예비 졸업생 김민희입니다.

**Q. 어떤 계기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지원했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친언니의 권유로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진행했을 때, 멘토링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등학교 때 교육 봉사 동아리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교육 봉사를 하며 아이들과 함께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멘토 활동을 했던 거 같네요.

Q. 담당한 하이드 친구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드들과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 하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친다는 말처럼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리고 노력하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 해요. 초반에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이길 원하는지를 물었고, 그에 맞춰 행동하려고 했어요.

Q. 어떤 멘토링 활동을 함께 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려줄 수 있나요?

학습과 진로 멘토링을 주로 진행했어요. 학습을 위해서 윤리와 국어 수업을 진행했죠. 대부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해석하는 방식이었지만 시험 기간에는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 개념 정리 및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간추려 공부했어요.

진로를 위해선 희망하는 학과의 대학에 대해 아이들에게 찾으라고 한 후, PPT 형식으로 만들어 발표하게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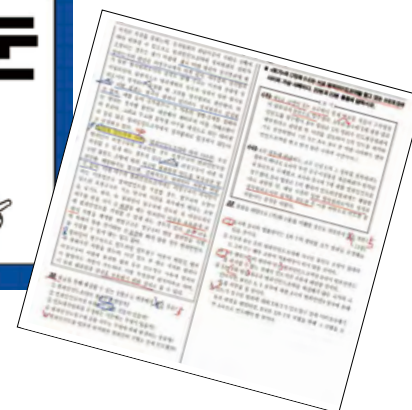
이를 통해 스스로 찾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꿈에 대해 발표하며 확신을 가졌을 거라 생각해요.

Q. ‘하이샘’이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멘토링 초반에 윤리 수업을 진행했을 때, 윤리가 정말 싫고 학교 수업은 더 싫다는 이야기를 한 하이드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윤리에 흥미를 가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에피소드 형식으로 수업을 준비했어요. 나중에 그 아이의 윤리 성적이 오른 것은 물론이고, 선생님 수업 덕분에 윤리 교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줬어요! 그때 ‘내가 누군가의 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부듯했습니다. 하이샘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요.



윤리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에피소드 식으로 구성된 수업 자료들.



Q.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 후기를 들려주세요.

디자인씽킹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아요. 고향인 삼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거든요. 디자인씽킹 프로그램을 하면서 당시 학생일 당시 느꼈던 삼척의 문제를 아이들도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점이 마음 아팠지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문제를 환기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Q.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저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말과 행동의 무게를 깨닫게 됐어요. 이를 통해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Q.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무국의 어떤 자원이 특히 든든하다고 느껴졌나요?

사무국에서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저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하이드 친구들에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저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돌아보니 2021년 전부이지 않나 싶네요. 매번 어떤 수업을 할 지부터 시작해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볼 수 있었어요.

Q. 함께한 하이드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안녕 해림, 예빈, 한비야 갑자기 말을 편하게 해서 놀랐지? 예빈, 해림이는 2년을, 한비는 1년 가까이 함께했구나. 매주 4시간, 한주로 치면 고작 4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큰 추억을 만들었어. 너희와 함께 해서 정말 좋았고, 항상 반응도 잘 해주고 잘 웃어줘서 고마웠어. 힘든 고3 시기를 함께 보낼 수 없어서 슬프지만,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고, 진심을 담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줘! 나중에 선생님과 밥 한 끼 같이 하자!

Q. 나는 []이 되고 싶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작년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회는 어지럽고, 아이들은 학업이나 여러 일들로 힘들어 해요. 사회에 아직 나오지 않은 아이들이 벌써부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변화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전히 좋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고민하며, 준비하며 사는 법 배웠어요”

박준모 하이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삼척에서 나고 자라 삼척지역에서 하이쌤 활동을 한 박준모라고 합니다. 송실대학교에서 언론홍보학과를 전공했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운 좋게 빨리 취업해 전공을 살려 경기에 있는 모 회사 대외협력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Q. 어떤 계기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지원했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2020년 여름에 하이원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올해로 2년째를 맞고 있네요. 음, 역시 면접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됐는데, 제가 그 때 삼척에 있는 복지관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거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지원을 받으며 차에서 면접을 봤던 기억이 새삼 떠오르네요.

**Q. 담당한 하이디 친구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디들과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삼척지역에 사는 3명의 하이디들과 멘토링을 함께 했습니다. 고등학교 후배인 친구도 있고 아님 친구도 있지만, 같은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역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멘토링을 해왔어요. 특히나, 올해 고3 수험생활을 마친 현재 하이디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처음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참여했을 때부터 함께해온 친구라 서로의 일상을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곤 했죠.

**Q. 어떤 멘토링 활동을 함께 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려줄 수 있나요?**



멘토링을 처음 시작했을 땐 학습 멘토링에 집중했어요. 하이디 중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영어 공부에 필요한 친구도 있었고, 고3 수험생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능이 끝난 이후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학교 생활이 너무 바빠서 오히려 멘토링 시간에는 휴식이 필요하거나, 교과서 밖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영화를 보며 사회의 주요 이슈나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했죠.

Q. ‘하이쌤’이라서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아무래도 2년 간 함께 성장해온 하이디의 모습을 볼 때가 아닐까 싶어요. 수능이 끝난 하이디가 되게 흥분해하면서 좋아하는데, 저까지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좋은 기분을 느끼기까지 그 친구가 걸어온 여정에 일부분이라도 함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네요.

**Q.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 후기를 들려주세요.**

디자인씽킹 워크숍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마케팅, PR이라는 분야도 어떻게 보면 근본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거든요. 디자인씽킹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이해 또는 공감이라는 부분에 대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Q.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성장했다고 느꼈나요?**

가장 큰 변화는 뭔가 쉽 없이 고민하는 자세를 길렀다는 것 같아요. 하이원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의 저는 꽤나 나태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매주 ‘하이디들을 만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전해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삶의 작은 부분에도 관심을 두게 되고, 좀 더 발전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공부든, 자기계발이든 말이죠.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한 것들이 갑작스러운 취업의 기회를 잡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Q.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무국의 어떤 자원이 특히
든든하다고 느껴졌나요?**

저에게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사실 점점 나이가 차는 대학생이라면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이 점점 죄송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이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라는 프로그램 덕분에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부모님께서는 자랑스러운 하이원 멘토링 장학생이라는 자부심도 드릴 수 있었죠.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하이쌤을 믿어주고,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해결해주려 노력하신 사무국 선생님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Q. 함께한 하이디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온 하이원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은 꽤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고 여러분도 매번 즐겁지만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오랜 기간의 멘토링을 무사히 완주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미래에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앞으로 우리 하이디들의 앞날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Q. 나는 []이 되고 싶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저는 [멋있는 아저씨]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멋있는 어른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작은 것에 감질하고, 악한 사람에게만 분노하는 그런 어른들이요. 돈을 많이 벌지, 사회적으로 큰 명성을 얻을지, 미래의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예의와 도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멋있는 아저씨가 되고 싶습니다.



2

3

4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특별한 시간

하이쌤, 하이드이가 함께 짝을 틔우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은 하이쌤&하이드이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이쌤은 멘토링 활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마음을 다잡는 하이원 장학캠프, 공감 능력을 길러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디자인씽킹 워크숍, 사회인 멘토링 등을 통해 꿈을 향해 한 단계 점프할 발판을 만들어 줍니다. 하이드이들은 온라인 진로 박람회인 꿈키움 페스티벌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찾도록 돕고요. 하이쌤과 하이드이가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낸 재기발랄하고 특별한 시간을 소개합니다.

p048

장학캠프

p050

보수교육 및 간담회

p052

디자인씽킹 워크숍과 우수팀 인터뷰

p062

꿈키움 페스티벌

p066

사회인 멘토링

p072

예능 장학 체험 프로그램

p074

수료식



- 1 다함께 찰칵 장학캠프 단체 사진.
- 2 점프 이의현 대표님의 격려사.
- 3 선서 중인 박정인 하이샘.
- 4 멘티들과 온라인으로 미리 인사!

하이샘과 하이드, 서로 만나다

장학캠프 2021. 5. 15 - 2021. 5. 16

하이샘과 하이드가 되어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

첫째 날에는 앞으로 하이샘, 하이드로서 열심히 활동할 것을 굳게 약속하는
발대식과 함께 하이드와 하이샘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멘토와 멘티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배우고, 다양한 멘토링 노하우를
전수받는 사전교육 시간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이샘이 된
2년 차 하이샘은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대식과 사전교육을 통해, 하이원 멘토링 장학의 하이샘과 하이드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기 시작하면서 하이샘과 하이드가 함께 만들어 나갈 10개월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설레는 첫 만남의 현장, 함께 살펴볼까요?

캠프에선 뭘 배울까? 프로그램 보기

구분	대학생		청소년	
	1차년도	2차년도	중학생	고등학생
멘토와 멘티의 이해	멘토학 개론 : 중고등학생 편		멘토링 A to Z 준비하기	'나는 ○○한 장학생이다'
주체별 교육	하이샘 주체별 교육		하이드 주체별 교육	
교수법 강의	교수법 기초 강의	교수법 심화 강의		

만족도 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발대식을 통해 강원랜드와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사전교육을 통해 멘토와 멘티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사전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멘토·멘티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훈훈함 가득한 학생 참여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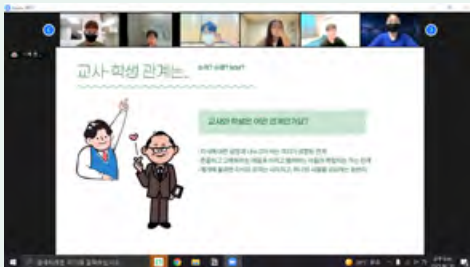
- 멘티 친구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유익하고 멘토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내용이 많았습니다.
- 멘토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더불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 현직 교사이신 분들의 조언을 얻어 너무 유익했어요!
- 교수법, 소통방법 등의 강의와 더불어 새로운 플랫폼을 다양하게 알 수 있었고 소통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유익미했다. 캠프 경험이 멘토링 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다.
- 비대면으로 멘토링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정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줌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진행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하이드와 하이샘을 정말 잘 챙겨주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 멘토링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향후 10개월을 어떻게 보내야할 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장학 프로그램이 정말 시작되는 것이 실감이 났어요! 두근두근!
- 멘토링에 있어서 실무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멘토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과 사이트 등을 배워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멘토 멘티 서로 간의 정보나 예의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던 시간이라 생각한다.
- 하이샘과 하이드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관계를 이어 나가는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온라인이라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비대면에 맞춘 활동을 해서 놀라웠어요.
- 본격적 장학 프로그램들을 시작하기 이전에 장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트고, 2021년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지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됐어요!
-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하이드와 하이샘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서 좋았어요!
- 멘토링뿐만 아니라 인생 팁도 같이 주시고, 지루할 틈 없이 유익한 시간으로 가득했어요! 10개월 동안 오늘 배운 대로 성장하는 하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거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영광스럽고, 벌써 마음이 단단해지고 나의 꿈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 너무 행복하고 다 너무 감사합니다 :)



by 하이샘

by 하이드



하이샘의, 하이샘에 의한, 하이샘을 위한! 보수교육·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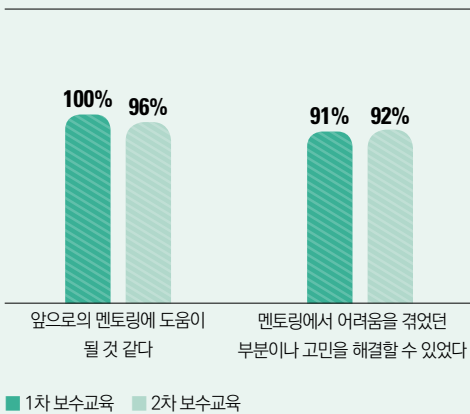
이 시간은 온전히 ‘하이샘’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합니다. 하이샘의 고민스러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줄 보수교육과 동료 간의 네트워킹을 만들어줄 간담회가 바로 그것! 올해는 멘토링을 진행하며 생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발전된 멘토링을 지원하기 위해 총 두 번의 보수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현직 중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과목별 멘토링 노하우가 가득했던 1차 보수교육과,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우수하게 수료한 하이샘 알럼나이와 함께하는 2차 보수교육까지! 보수교육으로 멘토 역량을 키웠다면, 간담회로 동료 간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만들 차례, 사무국과 즐겁게 대화하며 동료 하이샘들과 소그룹으로 만나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멘토링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어요!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 어느새 깃털처럼 가벼워진 하이샘의 고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하이드와 멘토링을 진행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줬답니다.

보수교육에선 뭘 배웠을까? 프로그램 보기

	날짜	주제	세부 내용
1차	2021.06.30	영어가 안되면 태식스쿨! (feat. 진로지도 팀 대방출)	- 영어 과목 교수법 - 진로지도 및 교과 외 교육팁
	2021.07.01	역사 선생님과 함께 하는, 행복한 멘토링 시간 만들기	- 사회/역사 과목 교수법 - 멘토링 운영 및 청소년 소통 방법 팁 전수
	2021.07.01	배움이 느린 친구, 어떻게 지도할까?	- 수학 과목 교수법 - 기초학력 및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 티칭 노하우 전수
2차	2021.09.13	진로 멘토링의 모든 것	- 청소년 진로 상담법, 진로상담 콘텐츠 - 알럼나이 발표 : 2020 활동 팀, 대학입시 멘토링 노하우
	2021.09.14	하이드라는 세계 : 하이드와 한발짝 가까워지기	- 청소년 관계형성 및 정서 멘토링, 사례를 통해 배우는 갈등관리 해결법 - 2020 활동 팀 나눔
	2021.09.15	24시간이 모자란 하이샘을 위한 시간관리법	- 효과적인 시간관리법, 수업계획법 - 우수 하이샘 활동 공유

100%까지? 보수교육 만족도 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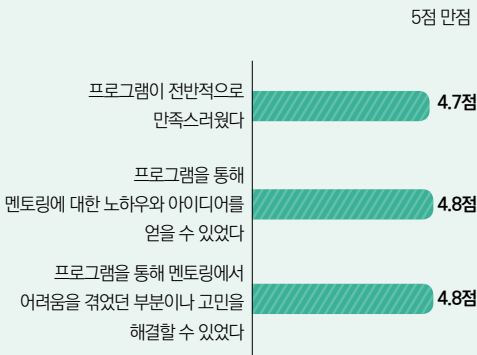


■ 1차 보수교육 ■ 2차 보수교육

높은 만족도 드러난 생생 후기!

- 실제 교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기회였어요. 멘토링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조금 아이들의 참여도를 끌어내며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을 지 알게 됐습니다.
-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법과 학생을 대하는 진솔한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 그냥 내신, 수능 영어만 가르치려고 했는데, 진정한 영어 멘토링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 열심히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 하이드들을 가르칠 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 같아서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실제 멘토링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들이나 조심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잘 배운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동안의 멘토링을 비교하면서 반성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D
- 내가 잊고 있던 기본적인 지침들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하이드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에 크게 공감하고 위로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멘토링이 더 활기차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이샘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만족도 결과



*1차: 2021. 7.22~7.23 / 2차: 2022.1.21 2회

연결고리 만든 훈훈 후기

- 저만 멘토링에 어려움을 겪는 줄 알았는데 다들 잘 이겨내고 있으신 거 같아서 용기가 됐던 거 같아요!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 동료 하이샘들을 만나서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멘토링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 간담회를 하면서 소그룹 회의를 통해 다른 하이샘들의 이야기와 노하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공감대도 형성되어 서로 격려 받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여러 하이샘들과 자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주셨음 좋겠어요! 이번 간담회 덕분에 여러 하이샘들의 고민도 알 수 있었고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하이샘"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과 나이를 가진 하이샘들과 멘토링뿐만 아니라 또래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멘토링 종료 기간이 다가올수록 의지가 조금씩 사라졌는데, 다른 하이샘들을 보고 아직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면서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돕는 미래교육(디자인씽킹)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미래교육(디자인씽킹) 프로그램은, 생각하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색다른 방식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지역 사회를 주제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력과 협업 능력, 창의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5단계로 나뉜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씽킹 이론과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배우고, 디자인씽킹 WEEK를 통해 '크리에이티브 방과후 콘텐츠 디자인 챌린지'를 주제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 방과 후 이슈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모인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는 심화교육을 통해 구체화하고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가졌습니다. 작년에 비해 더 탄탄하고 알차게 진행된 미래교육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5단계로 짝 찬 미래교육 프로그램

1단계

디자인씽킹 이론교육
(2021. 7.12~7.19):
디자인씽킹 마인드셋 교육 & 사례

2단계

하이샘 퍼실리테이터교육
(2021. 7.20): 온라인 소그룹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및 기법 교육
/사전 미션 안내

3단계

미래교육 WEEK(2021. 7.27~7.30):
디자인씽킹 프로젝트 수업/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문제 정의, 팀별
아이디어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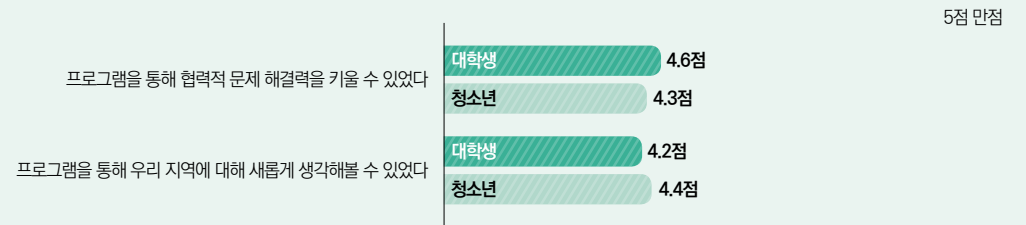
4단계

심화교육(2021. 8.11):
아이디어 구체화 및 프로토타입
제작/우수 아이디어 최종 발표

5단계

우수 아이디어 실행
(2021. 8.12~12.12):
팀별 아이디어 진행과정 코칭,
아이디어 실행

디자인씽킹 WEEK 참여자 만족도 조사



“하이드와 함께 활동하면서 하이드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같이 얘기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

“우리 지역에 대해 더 자세히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공유, 확대한 시간이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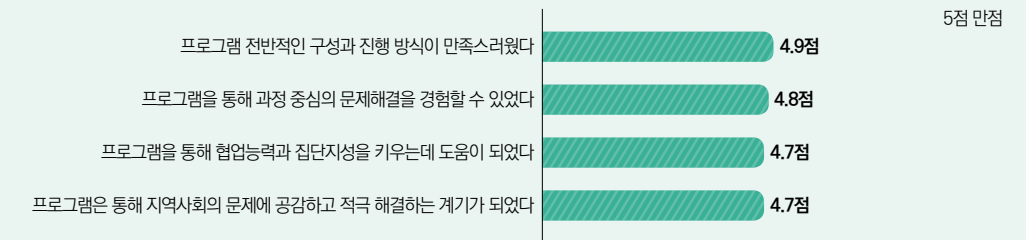
“하이드와 협력해서 무언가를 해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함께 팀을 이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좋았다!”

“문제해결에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하이드와 지역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감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퀴즈도 좋았구요! 하이드들과 앞으로 수업에서 이야기할 만한 공감거리가 많아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by 하이샘

미래교육(디자인씽킹) 심화교육 및 아이디어 실행 만족도 결과



“나중에 온라인 말고 실제로 만나서 하고 싶을 정도로 재밌었어요!”

“작년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기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아이디어를 계획할 일이 있다면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경험이었다!”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 좋았다!”

“내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지역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다 보니 지역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하이샘과도 더욱 친밀해진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됐어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로 인해 협력하는 자세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by 하이드



정선



공부하고 소통할 곳 적은 지역 연대로 보완했죠 정선 방구석 스터디메이트

여의진 하이샘, 박인경 하이다

**Q. 우리 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함께 뭉치면 생기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의진 하이샘 저희 팀은 누구보다 끈끈한 모교의 선후배 관계예요! 항상 일상 이야기로 시작하는 멘토링은 학교 생활과 동네 근황 이야기만 해도 화수분처럼 나눌 대화가 많답니다. 같은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고민과 문제점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사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박인경 하이다 저희 하이샘은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대학생 역할도 하시면서 하이샘의 역할도 하시고 회사에서는 인턴 역할도 하시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게으른 완벽주의자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저의 이러한 무계획성을 하이샘이 보완해줘서 계획적으로 무엇이든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여러분의 디자인생킹 아이디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여의진 하이샘 학교 외 학습 환경이 열악한 폐광지역의 학생을 위해 면학 분위기를 갖춘 온라인 학습 공간과 학습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죠. 학생이 주 3회 이상 단체 채팅방에 '학습 목표'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주 2회 줌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하게 도왔어요. 중고등학생 20명이 모여 자극과 동기부여도 주고받으며 한달 간 보냈는데, 학습동기를 주고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박인경 하이다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역 문제점을 보완한 프로젝트예요. 온라인으로 학업 자극도 받고, 계획하는 힘을 기르게 했죠. 참석을 별로 포인트를 지급해 학습 용품을 살 수 있게 했어요.

**Q.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부딪혔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의진 하이샘 한 달간 진행한 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본인의 학습목표를 성취하였다'는 학생이 84.6%, '향후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학생이 92.2%로 나왔더라고요! 많은 학생에게 좋은 인식을 줬다는 걸 알게 돼서 기뻛죠. 또, '함께 공부해서 즐거웠다', '좋은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 '친절한 답변이 도움되었다' 등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굉장히 부듯했습니다.

박인경 하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순간순간이 다 기억나요. 시험기간이 겹쳐서 저도 진심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를 하다가도 화면을 보면 다른 학생들도 공부하는 모습이라서 부듯하고 살짝 감격스럽기까지 했어요.

**Q. 만약 시간이나 자원이 더
있었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싶나요?**

여의진 하이샘 '정선 온라인 방구석 스터디메이트 만들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과 더 오랫동안 소통한다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의 영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학생들과 마주하며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박인경 하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한달 간 활동하면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더 장기적으로 진행하면 학습에 대한 이로운 습관을 확실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박인경 하이다

나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실행력]이다
문제 인식만 하지 해결 방안은 생각하지 않았고, 실행도 잘 안 했죠. 하지만 디자인생킹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보며 부딪힘과 성취감을 느꼈어요.

to 하이샘

함께 하는 활동에서 진심을 다해주시는 것 보고 저도 많이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해욤♡



여의진 하이샘

나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대학 생활의 전부]다
멘토링 시간이 자연스레 일상이 되며, 알찬 대학 생활의 반증이 된 것 같아요. 매 순간 책임감을 길러주고,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주는 성장의 매개체가 됐죠.

to 하이다

긍정적인 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잘 극복할 거라고 믿어, 지금 그렇게 잘 성장한 것 같아 보여! 언제나 스스로없이 연락해 만나는 사이 유지하자!

**Q. 다음에도 미래교육에 참여한다면
지역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해보고 싶나요?**

여의진 하이샘 다음에도 미래교육에 참여하게 된다면, 폐광지역의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만들어서 모이는 동아리 발표회 장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교류할 수 있는 동아리 영역이나 아이디어가 적은데요, 다양한 학교가 연합해 발표회를 운영한다면 서로 공유할 인사이트가 많을 것 같아요.

박인경 하이다 평상시에 사복 내에 있는 학원이나 식당의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사복 거주인만 아니까, 타지역 사람이 사복에 왔을 때 쉽게 알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여의진 하이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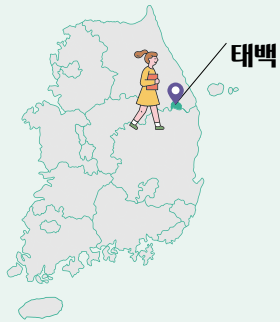


박인경 하이다

**Q. 내가 그리는 우리 지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여의진 하이샘 우리 지역이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폐광지역에서 서로를 돕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생각했을 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서 힘이 되어주고,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사이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인경 하이다 사소한 문제상황이 생겨도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힘쓰는 것이 제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저는 미래에 사소한 문제일수록 스스로 해결하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태백

함께 작물을 심고 기르며 희망을 수확하게 했죠 영양 가득 밥상 만들기 (feat. 텃밭 가꾸기)

김도윤 하이샘, 윤혜민 하이드



**Q. 우리 팀만의 특징이 있다면?
자랑 좀 해주세요.**

김도윤 하이샘 '독특 튀는 아이디어'요!
몽치면 혼자서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더 참신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윤혜민 하이드 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아이디어 구상을 함께
잘 한다는 점이에요. 처음 아이디어를 낼
때는 흔한 것만 났었는데 '급식'이라는
주제를 하이샘이 내주신 덕분에
남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거든요.



김도윤 하이샘

**Q. 여러분의 디자인씽킹 아이디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김도윤 하이샘&윤혜민 하이드 저희
팀의 주제는 '영양 가득 밥상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학교 텃밭에서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농작물을
키워보고, 수확한 채소로 만든 '채소
요리 대회'를 여는 거예요. 입상한
메뉴는 영양사 선생님과 상의해 실제
급식 식단에 포함되도록 해보고요.
이 모든 과정을 브이로그 영상으로
제작하고요.



윤혜민 하이드

**Q.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부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김도윤 하이샘&윤혜민 하이드
생각치 못한 변수가 생긴 순간이
기억 남아요. 처음엔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습관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급식 제조과정에 직접 참여해 영양가
있는 식문화·식습관 형성에 스스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엄청
큰 포부가 있었는데, 실제 아이디어를
실행하면서 코로나19 악화, 아이디어
규모 축소 등 다양한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함께한 3명의
친구들과 퍼실리테이터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실현할 수 있었어요.

**Q. 다음에도 미래교육에 참여한다면
지역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해보고 싶나요?**

김도윤 하이샘 태백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느끼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길고 부정확한
버스 배차시간'과 '학생들 간의 정보
공유의 장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처럼 태백 지역
중학생 및 고등학생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역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고 싶어요.
구상 중인 앱의 주요 기능은 각 게시판들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실시간 버스 배차
알림 서비스 정도입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을 하면서 '사회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참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앱 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공부한 뒤 실제로 앱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윤혜민 하이드 정선 지역을 위한 아이디어를 실행해 보고 싶어요. 정선 지역에
놀러갈 때 마다 놀거리라고 영화관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정선 지역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여가, 취미 프로그램을 그 지역 장학센터나
아동센터에 적용해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보고 싶어요.



윤혜민 하이드

나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희망의 발판]이다
꿈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원하는 학교에 대해 알게 되고
정보도 얻었죠. 덕분에 보건교사라는 꿈을 찾게 됐어요.

to 하이샘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샘
간호학과 생활이 힘들어도 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항상 힘내셨으면 해요. 제가
멋진 성인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나요.)



김도윤 하이샘

나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보람찬 수확]이다
파종하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는 것 모두 서툴렀지만 그럼에도 잘
자라준 열매들 덕분에 보람되게 장학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to 하이드

처음 하이드를 만났을 때 간호학과를 지망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1년 동안 멘토링 잘 따라와 줘서 고마워요. 다시 만날 땐 하이드가 이루고 싶던 꿈들이
현실이 되어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Q. 만약 시간이나 자원이 더
있었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싶나요?**

김도윤 하이샘&윤혜민 하이드 처음
계획했던 학교 단위의 텃밭 가꾸기,
대회 개최, 영상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제로 진행해 보고 싶어요.
상추 키우기 키트로 상추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앞서 말했던 다양한
활동이 병행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목표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겠죠.

**Q. 우리 지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나요? 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도윤 하이샘 미래의 태백은
여전히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심화, 교육격차 등의 문제로
학생 수를 비롯한 학교수가 점점 더
줄어가고 있고 태백 같은 농어촌
지역은 문제가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의 태백에는 자녀들이
교육격차, 사교육 등의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교를 비롯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꾸준한 멘토링을
진행해 입시 정보 제공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윤혜민 하이드 우리 지역이 좀 더
발전해서 의료기술, 교통기술,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은 진폐증 환자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태백이라는 지역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예술로 문제를 유쾌하게 해결했죠 횡단보도 트릭아트

정서린 하이샘, 이우리·정수현 하이디



**Q. 우리 팀만의 특징이 있다면?
자랑 좀 해주세요.**

정서린 하이샘 적극성이 특출나다는 것! 함께 뭉치면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모여서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리 하이디 저희는 미술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다르지만 비슷한 길을 걷고 있어, 생각이 잘 맞고, 서로 이해해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현 하이디 첫 번째로 하이샘이 저희를 완벽하게 컨트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까지 믿음직스럽게 해주시고 있기에 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정말 열심히 뭐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준 우리 하이디가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내줘서 팀이 발전한 것 같아요.

**Q. 여러분의 디자인씽킹 아이디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우리 하이디 학생과 운전자를 배려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 만들어진 아이디어입니다.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게 유도하면서 운전자도 횡단보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죠.

정수현 하이디 어떻게 하면 학생과 운전자가 무사히,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횡단보도 트릭아트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입장에서 횡단보도가 잘 보이게 해 사고를 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한 중고등학교 근처에는 스쿨존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이 횡단보도가 스쿨존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Q.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정서린 하이샘 직접 프로토타입을 진행하면서 아이디어가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구상하고 진행하던 아이디어의 실제 문제점을 알게 됐고, 서로 의견을 귀담으며 수정하다 보니, 아이디어가 더 좋은 방향을 발전했거든요.

이우리 하이디 아무래도 직접 아이디어를 실행해 본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횡단보도를 걸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양쪽의 시선에서 문제점을 찾아 보완할 수 있었거든요.

정수현 하이디 프로토타입을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해보고 아닌 것 같은 부분은 수정하고 다시 시도해본 과정이 뿌듯했어요.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나가서도 이 경험이 좋은 발판이 되어 주지 않을까요.

**Q. 만약 시간이나 자원이 더
있었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싶나요?**

정서린 하이샘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빛이 반사되는 야광 배지 같은 것을 부착해 보완하고 싶어요.

이우리 하이디 보행자 시점에서 횡단보도에 눈길에 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개선하고 싶어요.

정수현 하이디 횡단보도 트릭아트로 시작했지만, 야광 횡단보도로 진로가 바뀌어 트릭아트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Q. 다음에도 미래교육에 참여한다면
지역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해보고 싶나요?**

정서린 하이샘 매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버스를 운행하면 어떨까요. 버스를 타고 경비 부담 없이 문화활동을 하고 오는 거죠.

이우리 하이디 학생들의 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행해보고 싶습니다.

정수현 하이디 진로에 관해 배우고 체험할 시설이 거의 없는데, 이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고 싶습니다.



이우리 하이디

나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발전]이다

세상을 보는 견해를 넓혀줬어요. 여러 사람과 소통하며 사회성도 길러줬고요. 제 발전에 여러모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to 하이샘

부족함 많은 저를 이끌어 준 선생님으로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만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게요!



정수현 하이디

나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발전의 기회]이다

멘토링을 시작하고 아크릴 그림을 맘껏 그리며 미술에 대해 더 깊이, 자세하게 알게 되었어요.

to 하이샘

중간중간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을 때 먼저 이끌어 주시고, 어리버리할 때 정리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사실 옆에 계시기만 해도 든든했어요. 하이샘 덕분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서린 하이샘

나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발전의 기회]이다

하이디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제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었어요.

to 하이디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줘서 고맙고, 지금처럼 늘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자!

**Q. 내가 그리는 우리 지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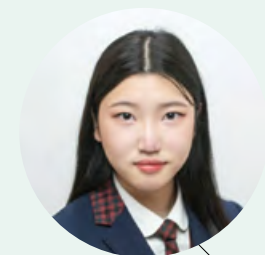
정서린 하이샘 학생들이 더 밝은 곳에서 자유롭게 뛰놀면 좋겠어요.

이우리 하이디 지역에 이름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기여해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수현 하이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안전한, 불편한 점이 생겨도 함께 고쳐 나가는 지역이 되면 좋겠어요.



이우리 하이디



정수현 하이디



정서린 하이샘



삼척

소통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 꿈꿔요 소통하는 사계절 버스정류장

이경민 하이샘, 윤여민·이지후·조민서 하이디



**Q. 우리 팀만의 특징이 있다면?
자랑 좀 해주세요.**

이경민 하이샘 우리 팀의 하이디들은 모두 예능장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만큼 개개인의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넘치고 손재주와 미적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하이디들이 뭉치니까 아이디어가 배가 되고, 생각에 머물지 않고 결과물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요.

윤여민 하이디 하이샘과 하이디분들이 모두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많은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후 하이디 구성원 전체가 미술관련 전공이라 다른 팀보다 생각과 마음이 더 잘 맞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민서 하이디 역시 단합이 잘 되어 협동도 잘 된다는 거죠.

**Q. 여러분의 디자인씽킹 아이디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경민 하이샘&
윤여민·이지후·조민서 하이디** 저희 팀은 '방과 후 교통 이슈'를 주제로 디자인씽킹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방과 후 교통문제로 버스 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기다리다가 카페를 가거나 택시를 타거나 먼 길로 샌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소통하는 사계절 정류장'입니다.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 탄 길로 새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정류장에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QR코드로 참여할 수 있는 퀴즈 게시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유 도서관, 4계절 예쁘게 자라나는 화분, 갑자기 비 오는 날 쓸 수 있는 공유 우산 등을 설치했습니다.

**Q.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경민 하이샘 하이디들이 집중해서 준비해 온 재료들을 설치하며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하이디들의 모습을 보며 흐트하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윤여민 하이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아이디어가 완성되는 것을 보니까 뿌듯하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지후 하이디 계획했던 아이디어를 다같이 만나서 직접 실행해 보았을 때가 가장 좋았던 거 같아요.

조민서 하이디 저는 하이샘과 하이디와 같이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완성했을 때 제일 뿌듯했어요. 그동안 같이 열심히 준비해왔었던 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니까요!

**Q. 만약 시간이나 자원이 더
있었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싶나요?**

이경민 하이샘 시간이 흐르고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유 우산이나 돛보기 등이 사라졌어요. 여력이 있다면 도난방지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싶네요.

윤여민 하이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힘들지 않게 하는 방법 중, 더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용해보고 싶어요.

조민서 하이디 필요한 용품을 추가 조사해서 설치했을 거 같아요.

**Q. 다음에도 미래교육에 참여한다면
지역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해보고 싶나요?**

이경민 하이샘 무단횡단 하거나 도로 갓길에서 위험하게 다니시는 어르신 등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싶어요.

이지후 하이디 지역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실행해 보고 싶어요. 저희 지역은 관광객이 많아 주차장 자리가 부족해서 길가에 아무데나 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조민서 하이디 저희 지역에 횡단보도가 적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대해 아이디어를 실행해보고 싶습니다.

**Q. 내가 그리는 우리 지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이경민 하이샘 지역사회의 희망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원이 반복되면 우리 지역에도 뛰어난 인재가 나올 거고, 그들이 다시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밝고 활기찬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지후 하이디 우리 지역에서 알아주는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조민서 하이디 더 발전하는 미래를 꿈꿔요. 그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이지후 하이디

나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길]이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게 됐어요.
to 하이샘

선생님 덕에 예술고 시험을 도전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노력할게요!



조민서 하이디

나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성찰]이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to 하이샘

하이샘 만나면, 어려웠던 부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어요!



윤여민 하이디

나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이다
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to 하이샘

비대면 수업할 때 캠이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민 하이샘

나에게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계기]다
하이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인 멘토링이나 디자인씽킹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to 하이디

분명 자신만의 길을 잘 개척해서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 길에서 가끔 지치고 힘들면, 또 가야할 길을 잃으면 언제든지 쌤한테 연락해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꿈키움 페스티벌 2021.12.19~20

“꿈을 가꾸는 시간, Dream Gardening”

작년 강원 폐광지역의 청소년에게 넓은 세상을 알려줬던 꿈키움 페스티벌,
올해는 더 넓고 풍성해졌습니다.

전국의 폐광지역 청소년까지 아우르고, 축제도 기간을 늘려 이틀 간 더 알차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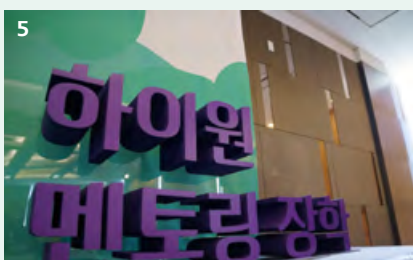
꿈키움 페스티벌은 지역 선배 대학생이 직접 알려주는 학과 및 진로 정보로 진로
고민을 해결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축제의 장입니다.

첫 날엔 전국 폐광지역 약 6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온라인 학과박람회와
공부 유튜브 구슬쥬, 개그맨 김용명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어요!

둘째 날엔 청소년에게 아낌없이 진로 정보를 나눠주며 조력자 역할을 한 꿈키움
서포터즈들을 위해 강원랜드 임직원 멘토님의 멘토링이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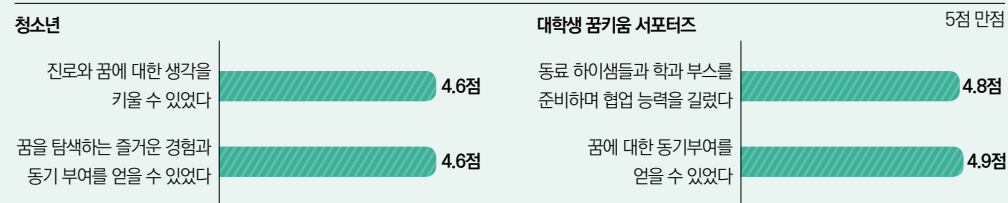
폐광지역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 꿈키움 페스티벌! 그때의
즐거움 현장 속으로 출발해볼까요?

- 1 강원랜드 심규호 부사장님
격려사
- 2 진로에 대한 고민을 풀어줄
학과 박람회 현장.
- 3 공부 유튜브 구슬쥬님의
토크콘서트 현장
- 4, 6 개그맨 김용명님의
토크콘서트 현장.
- 5 이틀 간 다채롭게 진행된
꿈키움 페스티벌.



12.19 Day 1 대학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다 모여! 온라인 학과 박람회와 토크콘서트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장학생 후기(청소년)

-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자주 참여하고 싶습니다.
- 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고 구슬쥬님의 강연 덕분에 큰 마음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주신 말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잘 알지 못했던 학과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머릿속에 진로 관련된 학과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다!
-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끈질긴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이번 기회를 통해 새삼 깨닫게 되어 내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 평소 궁금해도 쉽게 찾기 힘들었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알아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해당 과를 직접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분들이 여러 팁과 과에 대한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질문도 잘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 열심히 살고 싶어지는 느낌!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 꿈키움 페스티벌의 목적이 대학, 진로 관련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 원하는 진로가 있던 나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주변에 원하는 직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질문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적은 편이라 정말 도움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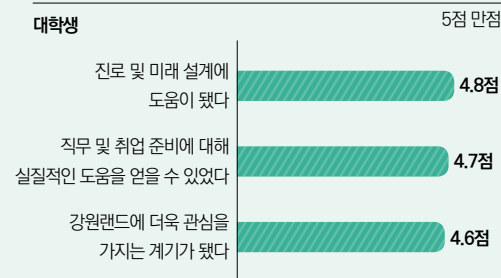


12.20 Day 2 현실적인 조언과 다독임 가득했던, 강원랜드 임직원 멘토링

참여 장학생 후기(대학생)

-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선, 태백, 영월, 삼척 지역 발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랜드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멘토님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스텝없이 풀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멘토분들이 너무나 솔직하게 그리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는 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멘토님들 덕분에 강원랜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실제 취업 준비 과정을 거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목표를 위해 달리다 보면 어느새 그 목표를 이루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연한 목표일지 몰라도 목표를 구체화하고 차근차근 과정을 밟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용기도 생긴 것 같습니다!
- 진심이 느껴지는 멘토링이었습니다. 멘토님들께서는 본인들의 경험, 준비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의 감정까지도 전달해주셨고, 저를 비롯한 멘티들은 멘토님들의 진심 어린 멘토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멘토님들마다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이야기가 제게는 취업준비 뿐만 아니라 남은 1년이라는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진심이 가득 담긴 멘토링을 선물해주신 멘토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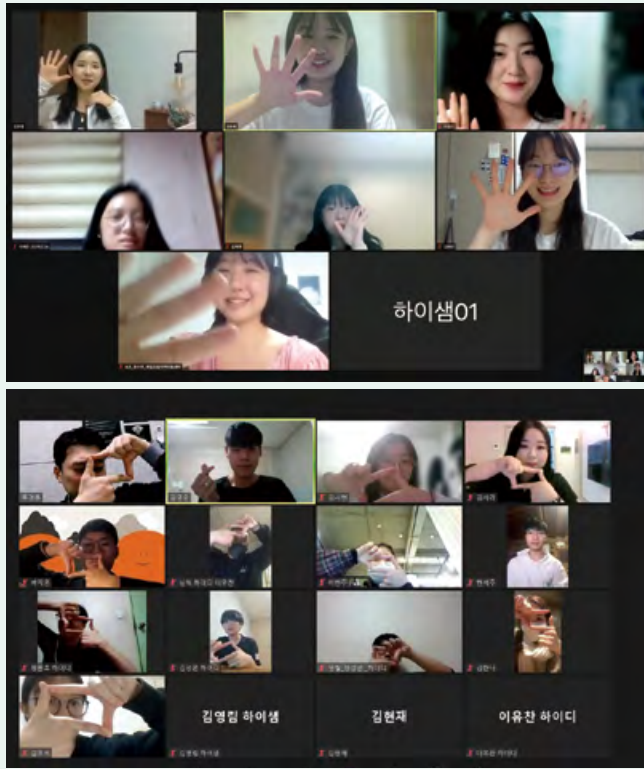


- 1 페스티벌 2일 차, 단체 사진 한 장 찰라!
- 2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멘토링 현장.
- 3 장학 사업의 면모를 자세히 알려준 강원랜드 간담회 현장.

꿈키움 서포터즈 후기

- 학과에 대한 소개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이디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정말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지원할 거예요.
- 팀원들과 거의 2주간 함께 준비하면서 제 대학 생활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동료 하이생, 알럼나이 분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폐광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해줘서 굉장히 부듯했고,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재학할 당시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꿈키움 페스티벌이 더 큰 행사로 발전해 폐광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또래 대학생들을 만나 활동할 수 있어서 다시금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됐죠.
-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 활동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는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오랜만에 저의 진짜 자아를 찾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우울하고 무기력했는데, 이 활동 덕에 밝은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만난 건 이들뿐이지만, 항상 뒤에서 지켜봐 주고 응원해주신 덕에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 '정말 캠프에 잘 왔다'는 생각 백 번 했어요! 그만큼 뜻깊고 많은 배움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 폐광 지역 출신인만큼, 이러한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될까, 아이들이 들어줄까, 고민이 많았는데, 나름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 부듯하다.
- 이런 기회를 또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 할 만큼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동료 하이생, 하이디들,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기뻐요.





하이쌤, 든든한 울타리를 만나다 사회인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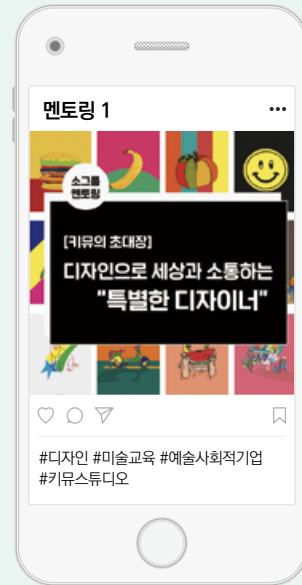
하이디에게 하이쌤이라는 든든한 멘토가 있듯, 하이쌤에게도 꿈을 향한 든든한 사회인 멘토단이 있습니다.

하이쌤의 진로 및 미래 설계,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는 전문 사회인 멘토님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생생한 진로 및 직무 정보와 하이쌤들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얻을 수 있었어요.

더불어, 작년에 이어 진행된 '하이디와 함께 듣는 특별 사회인 멘토링'을 통해 하이디들에게도 진로탐색, 대학생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정보 등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멘토링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사회인 멘토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이쌤과 하이디들은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새로운 꿈의 출발점을 찾으며 꿈을 향한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었어요.

커리어, 취미, 가치관, 라이프, 진로, 취업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키워드를 선택해 멘토님과 소통하고 동료 하이쌤들과 하이디들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사회인 멘토링 시간을 함께 만나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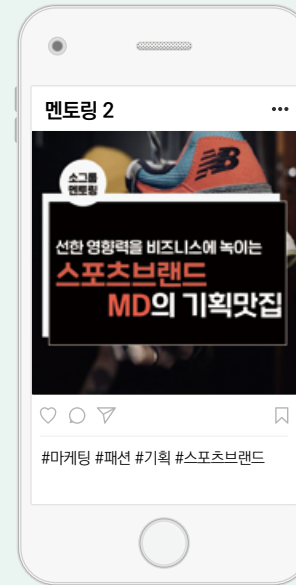
[키유의 초대장] 디자인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특별한 디자이너"
6/26(토) 12시 with 김은숙멘토님

키유 스튜디오의 김은숙 멘토님께서 미술 교육, 사회적 기업에 관심 많은 하이쌤들을 위해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진로 선택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과 하고싶은 것, 잘 할 수 있는 것 등 많은 선택지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지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수련 하이쌤**

"무슨 일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무엇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결국은 경험이 되고 의미가 생긴다"는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경민 하이쌤**

미술이라는 학문을 넓게 볼 수 있었어요. **신진영 하이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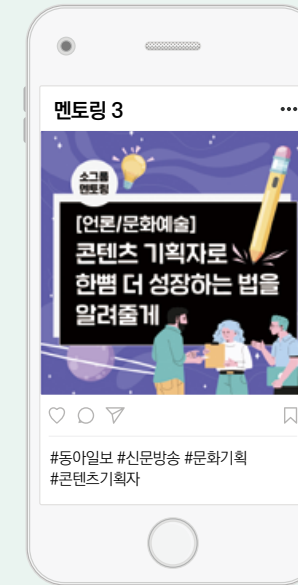


선한 영향력을 비즈니스에 녹이는
스포츠브랜드 MD의 기획맛집
9/27(월) 20시 with 김유정멘토님

현직 브랜드 마케터 멘토님에게 자신을 브랜드해 나 자신을 알아보는 법부터 상품 기획부터 유통 등 실제 상품의 마케팅 과정까지 배워봤습니다.

이번 멘토링에서 '퍼스널 브랜딩'이란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제안해주셔서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재현 하이쌤**

해보고 싶은 건 빨리, 그리고 최대한 열심히 해보고 돌아오자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경험이든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권초희 하이쌤**



[언론/문화예술] 콘텐츠 기획자로
한뼘 더 성장하는 법을 알려줄게
11/23(화) 19시 with 이종원 멘토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을까요? 실제 콘텐츠 기획자에게서 좋은 콘텐츠를 위해 좋은 기획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문사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며, 관련 직종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네요. 무엇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콘텐츠 기획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질이라면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김도보라 하이쌤**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경험을 쌓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윤곽이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서현 하이쌤**



면접에서 춤춰본 사람? 멘토님이
들려주는 "자존감 높이는 법"
1/26(수) 19시 with 류경훈멘토님

다사다난한 취업 히스토리를 가진 취업 고수가 알려주는 험난한 취업 시기의 생존법! 자존감 높이는 법을 배워봅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라도 도움을 주시려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저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사라 하이쌤**

앞으로 지원하는 직무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윤 하이쌤**

아직은 학생이지만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생활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비슷한 멘토링이 있다면 또 듣고 싶네요. **이유찬 하이디**

박정우 멘토님

경기도교육청 논곡중학교 역사교사

“교사로서 초심을 떠올리게 됐어요”



어떤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2021년 11월 26일(금) 깊어가는 가을 밤, 헤이그라운드에서 8분의 하이쌤, 장학생들을 모시고, '기사쓰는 역사 선생님의 진로토크 : 길 위에서 길찾기'라는 주제로 현장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떤 고민과 성장 과정을 거쳐 역사 교사가 되었는지, 역사 교사의 일상은 어떤 지, 교사가 된 이후에는 어떤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이쌤, 장학생들의 요즘 고민, 철학,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었고 멘토와 멘티라는 관계를 떠나 함께 어우러져 질문과 답변을 나누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하며 어떤 점을 느꼈나요?

누구보다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하이쌤, 장학생들과 함께하며 저 역시도

많은 자극을 받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초심을 떠올리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이쌤들이 제 시행착오를 간접 경험하면서 실수를 줄여 나가시고, '작지만 위대한' 성공에 이르는 나름의 힌트를 얻어가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폐광지역 하이쌤에게 전하는 응원의 말 한마디!

하이쌤들이 때론 진지하게, 때론 유쾌하게 참여해주신 멘토링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인생의 통과의례에서 누구나 대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의연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여정에서 유쾌함과 희망이라는 녀석과 함께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험도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폭넓게 경험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오늘을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김혜진 멘토님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제1발전소 발전부 주임

“과거의 내 고민 떠올라 공감하며 현실적인 조언했죠”



어떤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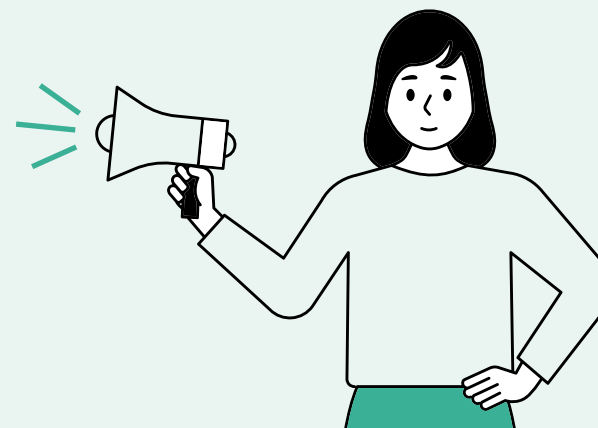
진로 탐색이나 공기업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샘플링하라! 비전공자의 공기업 취업의 비밀'이라는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예술계열 하이쌤이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제가 전혀 연관이 없는 분야라 아는 바가 없어 고민을 바로 해결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진로를 한정하지 말고 연관 분야로 취업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부분을 듣고 본인의 진로를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참여 하이쌤 모두에게 공통된 질문으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자신의 강점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고, 어떤 경험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멘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에서는 진로와 본인의 강점을 잘 생각해서 진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경험을 효율적으로 쌓으시라는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하며 어떤 점을 느꼈나요?

저 또한 장학생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소그룹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취업 준비를 위한 많은 정보를 얻었고, 이번 멘토링에 참여한 하이쌤들과 만나면서 3년 전 참여했던 소그룹 멘토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진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 고민했던 그 시기를 지나고 보니, 지금의 하이쌤들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진중한 태도로 고민을 하고 있나 느낄 수 있었고, 고민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폐광지역 하이쌤에게 전하는 응원의 말 한마디!

자기 자리에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할 바람직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하이쌤 여러분, 지금의 진중한 고민이 내일의 여러분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이근옥 멘토님
사단법인 선 상임변호사
“하이쌤처럼 안주하지 않고 살려고요”



어떤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저는 2021년 12월 29일에 “2년차 공익인권변호사와 나누는 이런 저런 세상이야기”라는 주제로 멘토링을 했어요. 내용은 크게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공익인권변호사의 일’ 두 가지로 나뉘었고요.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하이쌤 멘티들이 3~4명 정도 되었고, 사회복지 등 공익인권 분야에서 일하는 하이쌤 멘티들도 있어서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말씀드린 것은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패스와 기본권에 대한 사전질문이 많아서 방역패스 정책이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멘티분들이 기본권 침해 판단 기준인 ‘비례의 원칙’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이를 여러 이슈에 적용해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남겨주셔서 뿌듯했습니다. 평소에 헌법을 더 많이 들여다보아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고요. 또 준비한 멘토링이 끝난 뒤에는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하이쌤 멘티들이 남아서 ‘입시 상담’(!)을 20분 정도 진행하기도 했는데, 로스쿨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격려해드릴 수 있어 보람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하며 어떤 점을 느꼈나요?

제가 준비한 내용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제 강의 전달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닌 데도 한시간 반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복기하여 후기로 작성하신 것도 감명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이쌤분들을 비롯한 점프 장학생들께 말씀드릴 이야기들을 많이 생산하는, 좋은 콘텐츠를 가진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폐광지역 하이쌤에게 전하는 응원의 말 한마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에너지를 가지신 것만으로도 이미 정말 멋지고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하이쌤 여러분들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전진합시다!



이진우 멘토님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정보조사TF팀 소방관
“멘티들 칭찬에 더 뿌듯함 느꼈죠”



어떤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이번 멘토링은 자신의 꿈이 소방관이 아니더라도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멘토링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하이쌤과 하이드 분들을 위해 제가 어린 나이에 꿈을 이루게 된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봤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멘티분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고 것만으로도 멘티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을거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이번 멘토링은 소방관으로 국한되지 않고 제가 어린 나이에 일찍 꿈을 찾는 과정을 담았고 멘티분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고민을 한결 덜어내는 멘토링이었습니다. 질문 사례가 쏟아질 때 행복한 상황을 했습니다. 멘티분들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옛날의 제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학창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것들도 해보고 여행도 많이 다녔으면 좋겠고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기에 더욱 열심히 조언을 해줬던 거 같습니다. 그런 경험과 추억들이 쌓여 미래의 본인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이원 장학생 출신 알럼나이 멘토로서 직접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시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귀한 시간을 할애해 준 하이쌤과 하이드들에게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고마운 지역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소신을

가지고 이번 멘토링을 준비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후배들을 온라인에서라도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가웠습니다. 2시간가량의 짧은 시간 속에 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정말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멘토링이어서 뿌듯했어요. 멘티들의 칭찬이 절 더 신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멘토링이 너무 재밌고 즐겁다고 한 멘티들의 말들이 저에겐 너무 부듯했고 하이원 멘토링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시간을 다 채우면서 혼자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이쌤과 하이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네요. 혹시나 사회인 멘토링을 망설이시는 하이쌤과 하이드들이 계시다면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원 장학생 후배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좋은 경험을 얻고 갈 수 있었습니다!

폐광지역 하이쌤에게 전하는 응원의 말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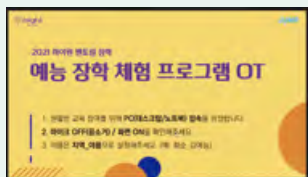
지금 현재 망설이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젊음이 무기입니다.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살아가세요.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먼 훗날 실패의 쓴맛이 달콤한 추억으로 기억될 테니까요!



하이다, 예술로 날아오르다 예능 장학 체험 프로그램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는 예술 분야의 새싹인 예능 장학 하이다들이 있습니다!
폐광지역 내에서 미술에 열정과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예능 맞춤 온라인 멘토링, 예능 장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지원과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디자인 및 미적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과 진학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또, 예능 장학에 선발된 하이다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미술 실력을 맘껏 뽐낼 수 있게 작품 활동을 해보고,
강원랜드 행정동에서 전시회도 함께 진행해 본인만의 멋진 예술 세계를 넓힐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 알차고 뜨거웠던 예술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예능 장학 체험 프로그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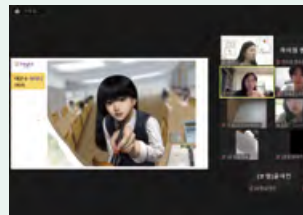
체험 프로그램 OT 및 전문가 특강(2021. 8. 18)

예술 분야 전문가인 멘토님의 강연을 통해 예술적 소양 함양과 작품 활동의 영감을
제공하고 하이다들에게 숨겨진 예술 분야의 잠재력을 끌어내도록 도왔습니다.

2

브리즈 아트페어 관람(2021. 9. 4)

전문 작가들의 작품을 실제로 보며 자신의 취향 발견을 발견하고 작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관심 및 흥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또, 평소 경험하기 힘든
아트마켓의 현장 체험을 통해 작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관찰할 수 있었어요.



3

작품 활동 및 크리틱(~2021. 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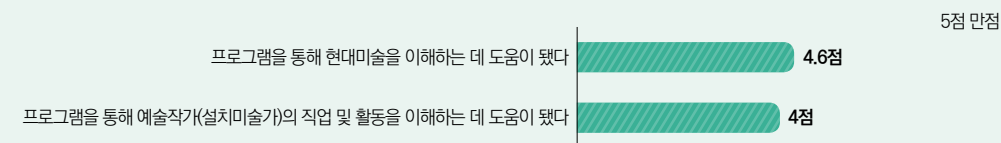
이제껏 진행한 체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번엔 하이다들이 예술적 능력을 펼칠
차례! 풍부한 창의력과 감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ESG'를 주제로 직접 작품을 제작하고 전문 작가님 및 동료 하이다들과 의견을
나누는 크리틱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4

작품 전시(2021.12.16 ~12.31)

이렇게 제작한 작품은 강원랜드 행정동 로비에 전시하여 예능 장학생들의 멋진
작품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브리즈 아트페어 만족도 조사 결과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나 가치관등을 직접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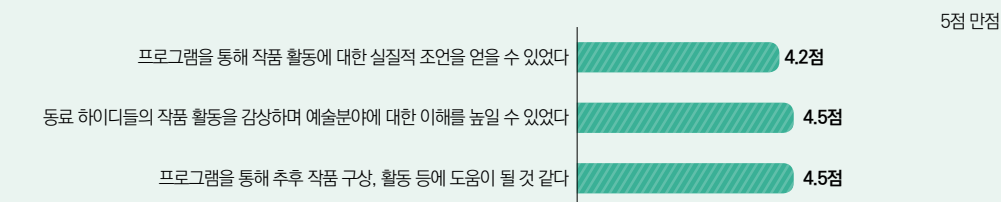
"개성이 넘치고 색깔이 명확한 그림들이 모여 있어서 감상이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작가님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거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작품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전시회를 가보게 되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하이다라서 부딪혔어요!"

작품 활동 및 크리틱 만족도 조사 결과



"내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 작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제 작품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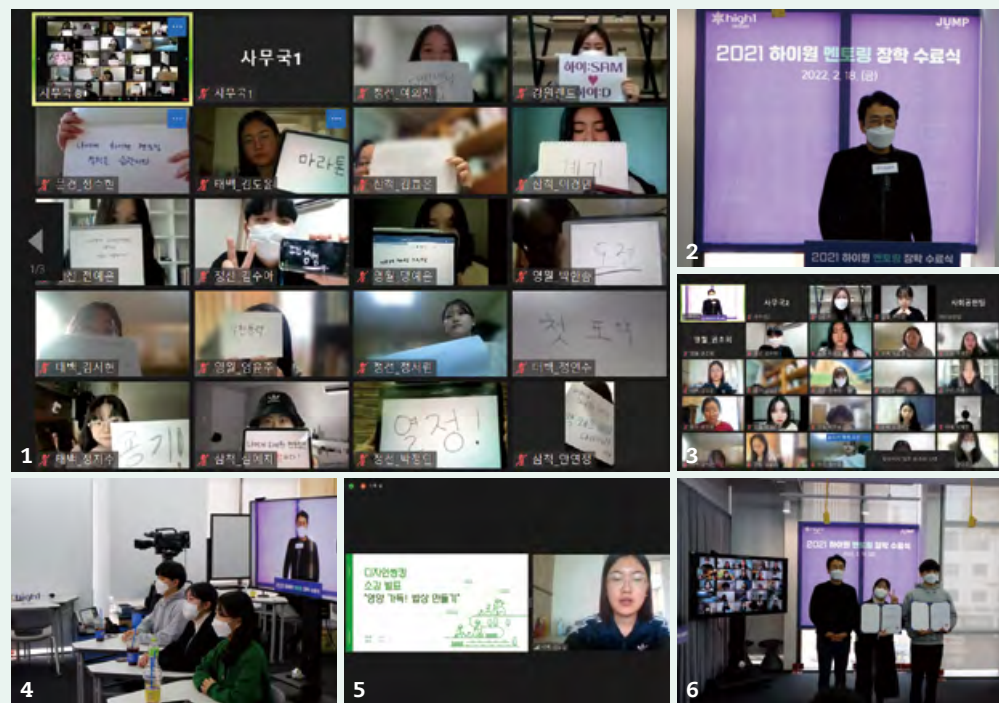
"미술을 따로 배우지 않아 조언 받을 기회가 부족했는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부족한 점을 말해줘서 나중에 그 부분을 보완해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HAPPY ENDING

다정한 안녕, 새로운 시작의 날

수료식 (2022.02.18)



하이원 멘토링 장학의 다정한 안녕,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수료식!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서 하이쌤, 하이다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10개월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는 수료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디자인씽킹 우수아이디어에 선정된 4팀의 발표와 함께 수료증을 수여하고 활동 우수자 발표까지! 또 10개월간 활동하며 느낀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10개월을 보낸 하이쌤, 하이다의 모습을 같이 확인해볼까요?

- 1 참여자들이 자신의 감정과 고마움을 카드에 적어 보여준 카드 섹션! 온라인이라서 더 훈훈하고 재미있던 새로운 장면이었어요.
- 2 점프 이의현 이사장님의 훈훈한 격려사 현장!
- 3 온라인으로 모여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열정만점 하이쌤들.
- 4 수료식 현장에 대표로 참여한 유강현, 황민영, 김경선 하이쌤의 진지한 모습!
- 5 디자인씽킹 우수아이디어 선정팀의 발표도 이어졌어요.
- 6 감격 넘치는 수료증 수여 현장!



7,8 수료증을 받은 태백 유강현·황민영 하이쌤의 소감 발표 타임.
9 대표 참석자 단체사진 촬영! 사진촬영으로 수료식 마무리!

하이원 멘토링 장학 소감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세 가지를 말씀드리며 소감을 전합니다.

첫째, 사회인 멘토링 활동입니다. 매주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서 많은 사회인 멘토링을 기획해주셨는데, 그중 외국계 제약회사 인사팀 멘토님과 했던 사회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공이 제약과 관련된 것이라 질문할 것이 많았고 답변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실제 제약회사의 채용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뽑는지 많은 것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째, 꿈키움 서포터즈 활동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이고 첫 기획부터 발표까지 한다는 사실이 쉽지 않은 않았지만 발표 당일 많은 학생들이 질문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어서 보람찼던 활동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서포터즈 분들과 같이 활동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강의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셋째, 하이다와 함께 했던 순간들입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함께한 하이다들이 싫은 소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와줬기 때문에 솔직하게 가장 부듯합니다.

10개월간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꾸준히 진행하며 하이다와 하이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넘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뒤돌아보니 서로 잘 이겨낸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 이어지고 하이쌤-하이다라는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길 바라면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태백 유강현 하이쌤

지난 1년간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통해 느꼈던 바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하이쌤은 하이다의 일반적인 성장이 아닌 하이다, 하이쌤의 양적 성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이다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앞서야 했습니다. 앞서간다는 것은 그들이 저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저의 조언을 강요로 왜곡시켜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본보기가 되어야 할 영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지적 영역과 심적 영역이었습니다. 하이다들의 지적 영역을 채워주려면 저 또한 배움의 자리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도 알게 되고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이다들의 심적 영역을 채워 주기 위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감정과 시간을 희생하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민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정적 대안이 아닌 더 나은 제시를 주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대한다면 피상적인 일상 나눔에 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다들을 만난 날, 그들의 상황을 들어주고 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한 어른의 자세로 더 나은 조언을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제가 함께 삶의 자리를 나누며 고민하는 시간은 우리가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결국 하이다들을 위해 시간과 감정을 희생하는 것은 저를 위한 희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감사드립니다.

-태백 황민영 하이쌤

3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특별한 조력자들

4

더 탄탄하게, 더 단단하게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될 거야!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더 깊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뒤에서 묵묵히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홍보하고 지지해 주는
홍보 서포터즈 '하이ON'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 '하이ON'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p078

하이! 홍보 서포터즈 하이ON을 만나다

p079

Interview | 블로그팀 이경민·임윤지·장유리·여의진 하이쌤

p081

Interview | 카드뉴스팀 김남영·김소정·김수아·전예은·박채원 하이쌤

p083

Interview | 영상팀 전예원·권초희·김경선·민찬역·박정인·김드보라 하이쌤

p086

EBS에 담긴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p088

하이원 뉴스-멘토링 수기 공모전 수상작 소개

5

하이! 홍보 서포터즈 하이ON을 만나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홍보서포터즈 “하이ON”은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홍보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한다’는 on의 의미와 ‘on air’(방송 중)의 의미가 합쳐진 이름으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홍보 분야에 역량과 재능이 있는 하이생들이 모여 만들어졌어요! 홍보 서포터즈로서 충분한 가능성과 멋진 활약을 보여준 하이ON 1기! 지금부터 하이ON 1기 하이생들이 달려온 여정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이ON은 어떤 일을 했을까

콘텐츠 다양화와 SNS 채널 활성화를 목표로, 총 15명의 하이생 홍보 서포터즈가 뭉쳤습니다. 블로그팀 4명, 카드뉴스팀 5명, 영상팀 6명으로 구성된 하이ON은 총 8개월 동안 하이원 멘토링 장학과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고 발행했습니다.

Step 1 선발 및 OT 진행

Step 2 콘텐츠 기획(취재) 및 제작 : 월별 콘텐츠 기획 및 제작(블로그팀·카드뉴스팀 월 2회, 영상팀 월 1회), 하이원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 취재 및 참여자 인터뷰

Step 3 전체회의 및 간담회(네트워크) 참여 : 전체회의 진행(2회), 합동 영상 촬영 및 간담회 진행



숫자로 보는 하이ON

블로그팀

16
총 블로그 발행수

1,386
누계 조회수

카드뉴스팀

15
총 카드뉴스 발행수

380
누계 좋아요수

영상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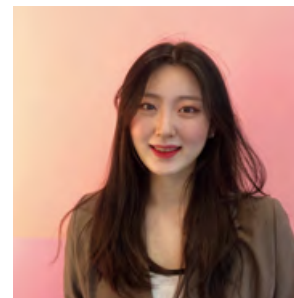
7
총 유튜브 영상 업로드수

2,659
누계 조회수

○○○ < > C Q 블로그팀 ↓ :

“덕분에 앞으로 나가는 법 배웠어요”

이경민 하이생



블로그팀은 단합력이 좋고 소통이 넘쳐요. 4명의 팀원이 각각 블로그 글 쓰기 담당, 카드뉴스 담당, 인터뷰 및 인터뷰 내용 정리 담당,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정리 담당 등으로 나눠 맡아 진행했죠. 개인적으로 ‘꿈키움 페스티벌’ 참여 후기 콘텐츠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즐거운 추억을 회상하며 일기장을 꺼내 보는 기분으로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글에 추억을 담은 사진이 많이 담겨있어서 개인적으로 소중한 콘텐츠예요.

저는 매 콘텐츠 회의를 할 때마다 ‘하이ON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를 하면서 콘텐츠 관련 이야기뿐만 아니라 멘토링을 하며 힘든 일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으며 소통할 수 있었는데 저에게 이 시간이 큰 힐링이었거든요. 또 블로그 팀원 모두 개인의 능력이 뛰어났어요. 글을 잘 쓰기도 하고, 팀원을 잘 이끌기도 하고, 의견을 진솔하게 내는 팀원의 모습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죠. 부러워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보다 어른스러운 제가 된 것 같아요”

임윤지 하이생



‘하이:ON 블로그팀 연말정산’ 콘텐츠가 기억에 남아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난 활동을 되돌아봤는데 정말 하나같이 소중하고 즐거운 기억이라서 제작 과정도 의미 있었거든요. 브리즈 아트페어 취재도 생각나요. 하이드의 반짝반짝한 모습을 지켜보며 제 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이ON을 통해 느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하던 당시 하고 있던 활동이 많아서 콘텐츠 제작이 버거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치만 팀원과 사무국의 격려, 책임감으로 끝까지 활동할 수 있었고, 덕분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자신감으로 인턴에 도전했고, 현재 인턴생활 중입니다. 무교지만, 제가 좋아하는 불교의 구절이 있어요.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구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다. 나는 벼락에도 멍들지 않는 허공과 같다.”

저는 앞으로도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팀원을 넘어 좋은 동료, 친구가 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팀원들이 있었기에 활동할 수 있었고 늘 즐거웠다고도 우리 팀에게 전하고 싶어요.

○○○ < > C Q 블로그팀 ↓:

“도움이 되는 콘텐츠란 무엇인가 알게 됐죠”

장유리 하이샘



하이디들에게 보다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싶었고, 제가 맡은 하이디 외의 후배들과 하이샘과도 아이디어나 콘텐츠 등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희망을 바탕으로 소통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하이ON 홍보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됐어요.

‘하이디 마음읽기’ 콘텐츠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오랜 시간 기획해 만든 콘텐츠이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교육봉사를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청소년 상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인 하이디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을 하이샘들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전공을 살려 기획한 콘텐츠였는데, 후에 교육봉사에나간 대학 동기가 ‘이거 봤냐’며 보여주더라고요.

다른 팀원들과 ‘도움이 되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평소에 생각지 못한 수업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으니, 미래의 선생님으로써도 성장을 이룬 것 같고요.

우리 블로그팀, 한 해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언젠가 또 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같이 하고 싶어. 다들 수고했어요!

“소중하고 든든한 동료들 얻었어요”

여의진 하이샘



블로그팀은 블로그를 통해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관한 세세한 정보가 궁금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을 업로드해요. 멘토링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장학생으로서 재미있게 참가한 행사들을 알려주기도 해요.

하이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발행했던 ‘온라인 멘토링을 위한 수업 도구’ 콘텐츠가 기억에 남아요. 온라인 멘토링 때 쓸 수 있는 꿀팁을 공유해보려 쓴 글이에요. 글을 작성하며 다른 하이샘들이 추천하는 수업 형태나 재미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저의 멘토링에 적용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소중한 동료 하이샘들을 얻었어요. 멘토링에 대한 소소한 일화나 꿀팁, 심지어는 고민상담까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동료 서포터즈가 생겼다는 것은 너무나도 든든한 존재가 생겼다는 것이겠죠. 하이샘들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멘토링의 방향성을 결정한 적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좋은 멘토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 끝나도 동료로서 오래 보고 싶은 사람들!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해주었던 블로그팀,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 < > C Q 카드뉴스팀 ↓:

“어렵고 소통하고 힘을 합치는 것의 묘미 알게 됐죠”

김남영 하이샘



2020년 하이샘으로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하이샘과 하이디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참여하면서 좋겠다는 생각에 지원했습니다. 저 혼자만 이 좋은 거 하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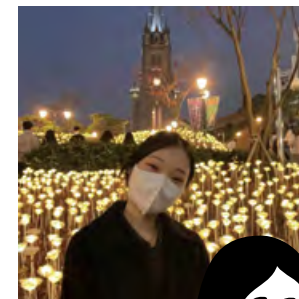
카드뉴스 제작과정은 기획-자료-시나리오-제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역할도 때에 따라, 약 2-3개월의 단위로 변경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영역을 경험하고 능력을 기를 수 있었어요! 백지상태에서 기획하고 제작하고, 뒤엎기도 해본 경험들이 저를 자라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파워 내향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은 편이라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하지만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생각은 나누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블로그팀, 영상팀과의 협업, 꿈키움 페스티벌 부스 팀원과의 활동 경험 등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힘을 합쳤던 경험이 남았어요.

내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팀원이 채워주면서 하나의 팀이 된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낀 것 같아요.

“콘텐츠 기획력 제대로 배웠어요”

김소정 하이샘



카드뉴스팀은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하이샘과 하이디들의 후기, 다양한 멘토링의 모습이나 팁을 카드뉴스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 인스타그램에 발행해요. 저는 현재는 카드뉴스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 멘토링이라는 주제로 발행한 카드뉴스를 SNS에 공유했을 때 지역 후배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이샘이 될 수 있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도 저희가 모집 대상, 장학 유형 등을 담아 만들었던 카드뉴스를 공유하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활동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일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적은 페이지와 글자수로 내용을 이해시켜야 하는 카드뉴스를 주기적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방법, 좀 더 효과적이고 전달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콘텐츠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수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 < > C Q 카드뉴스팀



“책임감, 적극성, 배려를 배웠어요”

김수아 하이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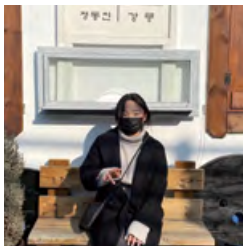


하이원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런 혜택을 저 혼자만 누려도 되나 생각이 들었고, 다른 폐광지역 친구들도 신청해서 좋은 혜택을 함께 누리게 더 알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카드뉴스팀에서는 서로 돌아가며 기획, 자료, 시나리오, 제작을 맡았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적극성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얻었어요. 예전의 저는 적극성도 부족했고 어떤 중대한 일의 책임도 맡기 싫어해서 매번 피했던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담당자를 맡아 총책임을 맡기도 했고, 단계마다의 피드백에서 어떤 피드백을 해 줘야 할지 적극성 또한 키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좋은 추억 쌓은 것 같아서 하이ON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어요”

전예은 하이샘



홍보 서포터즈가 되면 멘토링의 사소하지만 소중한 순간순간을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는데,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뿌듯한 마음까지 얻었어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회의하고 피드백하며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책임감을 길러줬고, 그 과정에서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알리기 위해 내가 기여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뿌듯한 마음을 얻게 됐거든요. 열심히 만든 콘텐츠를 SNS에 올렸을 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이 정말 멋있고 열심히 산다고 칭찬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멘토링과 홍보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죠!

“나만의 콘텐츠 만들어보고 싶어졌죠”

박채원 하이샘



올해 처음 하이샘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 하이ON에 지원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카드뉴스를 제작해 업로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만큼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하이샘들과 하이디들에게 설문을 돌리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때 하이디의 설문 내용을 보면서 하이샘 활동에 대해 보람도 느꼈고, 다른 여러 멘토링 사례들을 보며 더 나은 멘토링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또 다른 장점은 다른 하이샘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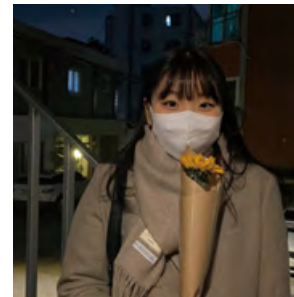
하이샘으로만 활동한다면 다른 하이샘들과 만나는 것도, 친분을 쌓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홍보 서포터즈를 하면서 다른 하이샘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단체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성취감을 느끼며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 > C Q 영상팀



“리더십, 협업능력 모두 늘었죠”

전예원 하이샘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폐광 지역의 대표적인 장학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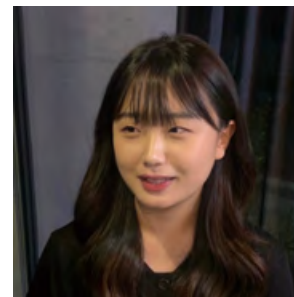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하이샘 브이로그: 하이샘의 방학생활'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영상에서 하이원 에듀카드(장학금)을 통해 장학생들이 실제로 밥을 사 먹고, 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장면을 담아 장학금을 실제 장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자 했는데, 하이원 멘토링 장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이원 멘토링 장학생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협업능력이 향상됐어요. 영상팀 팀장 역할을 맡은 것이 제 성장에 있어 큰 거름이 되었는데, 매달 기획, 촬영, 편집 과정에 대한 일정을 조정하고 공지하며 콘텐츠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팀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할 일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6명이 함께 영상 주제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편집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수용하는 자세를 통해 협업 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팀이었어요!”

권초희 하이샘



첫 시작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홍보 서포터즈의 이름이 정해지던 날, 행사 시작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갑자기 떠올린 이름 아이디어를 응모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SNS에 '하이ON'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이ON'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이ON이 아니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경험이 많습니다. 월별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송출함에 있어, 앞으로 자체적인 채널을 열어 운영을 하겠다는 꿈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팀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팀 프로젝트보다 길고 뜻깊었던 만큼, 내가 이 팀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다른 팀원과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하여 하이원 멘토링 장학 자체를 브랜딩 해보고 싶다는 꿈도 꾸게 됐어요.

○○○ < > C Q 영상팀



“작은 사회 경험했죠”

민찬역 하이샘



저희 팀이 만든 콘텐츠 중에 MBTI 관련 콘텐츠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영상팀 팀원들을 MBTI 별로 나누고 분석하고 어떤 점들이 다른 지 알아보는 내용인데, 제가 처음 출연하기도 했고 제 MBTI를 유튜브라는 세상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었어요. 하이ON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면서 많은 활동들이나 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저희가 열심히 작업한 작업물을 세상에 공개한다는 자체가 인상 깊었어요. 그 순간의 짜릿함이 있거든요. 홍보 서포터즈 활동이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앞으로 겪을 사회의 작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회사처럼 부서가 나눠져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회사생활처럼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얻은 성취감은 근래 얻은 기분들 중에 가장 뿌듯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서포터즈 영상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영상 편집 실력이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동료와 열정 얻었죠”

박정인 하이샘



하이온의 영상팀에서 ‘영상 편집’과 ‘영상팀원 사랑꾼’을 맡고 있습니다. 평소에 영상 편집하는 것에 흥미가 있었기에 역할 분담할 때 편집 역할에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영상팀에서 자막을 주로 담당하였고 브금이나 모션스티커 등을 활용해서 영상에 시청각적인 효과를 풍부하게 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영상팀원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역할을 맡은 자발적 사랑꾼이기도 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는 ‘MBTI 과물입 대학생들의 멘토링 썰 풀기’입니다. 그 전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팀원들끼리 지난 영상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했어요. 그 결과 영상팀에서 올린 영상 중에서도 조회수가 가장 높게 나왔고 주변에서도 재미있게 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이ON 활동으로 얻은 건 바로 ‘동료’와 ‘열정’! 하이샘들과 친해지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동료 하이샘들의 열정을 느끼면서 식어가던 ‘열정’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 < > C Q 영상팀



“인생 원동력 될 행복을 느꼈죠”

김경선 하이샘



브금 맛집 영상을 만든 일등공신, 김경선입니다. 단순한 멘토링 이상의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목적을 딱 이뤘네요. 영상팀은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해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 무엇인지부터 하이샘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하이샘과 하이드들의 고민을 담은 라디오 등 다양해요. 첫 오프라인 화식 때 팀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니들이 멘토링부터 진로 고민까지 다양한 고민에 조언을 해주고 응원해줬거든요. 이때 ‘하이ON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민을 나눌 든든한 언니들도 못 만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하게는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얻었어요. 이번 홍보 서포터즈도 영상이라는 분야에 처음 접근해서 막막했지만 행복했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촬영할 때의 현장감, 조회수가 오르거나 주변에서 ‘영상 재밌다’ 등의 반응을 해줄 때의 뿌듯함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나중에 제가 길을 잃었거나 주저 앓고 싶을 때 이때의 행복했던 순간을 되새기면서 매순간 소중함을 가지면서 열심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도적인 사람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김드보라 하이샘



희망 진로가 방송 쪽이라 지원하게 됐어요. 평소 강원랜드 복지사업이 좀 알려졌으면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영상팀에서 콘텐츠 기획, 유튜브 텍스트 작성 등을 했어요. 역시 기억에 남는 콘텐츠는 ‘대학생 MBTI 탐구생활’입니다. 기대를 갖고 제작했던 직전 영상이 생각보다 호응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기뻐요. 하이ON을 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얻었어요. 대학생이 된 이후로 주도적인 팀 활동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는 이끌고 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죠. 하지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팀원들과 팀장을 보며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번 영상팀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팀 활동을 할 일이 있으면 주도적인 팀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EBS에 담긴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멘토링 활동 사례를 통해 교육 나눔의 선순환 과정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가치를 나누고자 공신력 있는 교육 방송인 EBS1 채널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따뜻한 여정을 촬영해 방영했습니다. 하이섬과 하이드가 그려간 약 1년간의 여정을 담으며, 배움이 나눔이 되는 진정성 있는 따뜻한 교육의 가치를 소개했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하던 지난 4월부터 장학 캠프, 디자인씽킹, 예능 장학 체험 프로그램, 꿈키움 페스티벌 현장 등을 모두 찾아 현장을 녹화하고, 청소년 하이드를 만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또 이렇게 담긴 활동 영상을 보여 폐광지역 교육의 선순환과 관련해 전문가와 하이드, 하이섬이 패널로 등장해 토크도 진행했습니다.

총 2부로 나뉜 방영된 프로그램 속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여정, 살짝 소개할게요!

EBS 방영 주요내용

프로그램명	EBS1 미래교육 플러스	방영링크(유튜브)
방영일자	1부 - 2022. 01. 28 2부 - 2022. 02. 04	 1부  2부
제목 및 내용	1부 : “꿈의 씨앗을 심는 멘토링 - 나눔을 선순환하라!” -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전반적인 소개 - 하이섬 & 하이드 온라인 멘토링 활동 사례 및 인터뷰(소감) 방영 2부 : “꿈의 씨앗을 심는 멘토링 - 나누며 성장하는 우리” - 하이원 멘토링 장학의 오프라인 행사(디자인씽킹, 꿈키움 페스티벌, 임직원 멘토링) 사례 및 인터뷰(소감)방영	

1부 주요내용



① 1부는 폐광지역의 배움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전반적인 소개가 이뤄졌습니다.



④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은 같은 지역 출신의 대학생-청소년의 연결을 통해 서로가 함께 같이 성장하며 폐광지역에도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하이섬을 비롯해 강원랜드 관계자가 소감을 나눴습니다.



② 같은 폐광지역 출신의 하이섬 - 하이드가 지역을 넘어 온라인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효과와 의미를 패널들이 분석해봤습니다. 패널들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성장과 장학사업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4C 능력(의사소통·문제해결·창의력·협업능력) 향상에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③ 하이섬-하이드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진화 멘토링인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2부 주요내용



① 2부에서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디자인씽킹을 소개했습니다.



② 폐광지역의 교통, 학업, 생활안전, 문화의 4가지 주제로 하이섬-하이드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해보는 시간을 담았습니다.



③ 태백 지역의 횡단보도 교통 안전을 위해 트릭아트를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해보는 모습입니다.



④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청소년 온라인 진로 대축제, '꿈키움 페스티벌'의 모습과 꿈키움 서포터즈의 소감을 담았습니다.



⑤ 대학생들을 위한 강원랜드 임직원 멘토링을 통해 대학생에게도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는 사회인멘토링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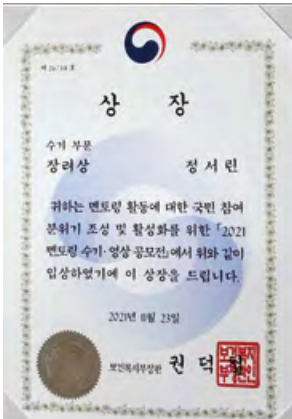


⑥ 프로그램 마지막, 2명의 MC가 장학사업을 통해 로컬 에듀의 중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과 미래사회의 혁신과 공존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이샘, 마음을 담다 멘토링 수기 공모전 수상

하이원 멘토링 장학의 또 다른 NEWS!

정선의 정서린 하이샘이 120명의 하이샘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하이드와의 멘토링을 담은 진솔한 글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1 멘토링 수기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답니다. 정서린 하이샘은 마치 명예홍보대사처럼 활약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하이샘과 하이드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지고 지원을 받은 멋진 기회였는데요, 멘토링 수기를 살짝 들여다볼까요?



멘토의 디딤돌, 멘티의 두드림

by 정서린 하이샘

“반가워요! 멘티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라고 물으면 “멘토 선생님! 오늘은 우리 멘토링 수업 뭐해요!”라며 묻는 두 명의 멘티들과 만나는 월요일, 수요일은 가장 즐거운 날이다. 우리는 그룹 멘토링으로 주 2회 총 4시간씩 모니터로 만난다.

하이원 장학 멘토링을 통해 미술에 관심이 많은 멘티 친구들과 함께 산업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나는 친구들에게 미술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자 매주 다양한 미술 활동을 준비한다. 멘티들은 나와 자라는 환경에서 비슷한 점이 많으며 나의 유년 시절 환경은 다른 도시들과 달리 낮에는 어둡고 밤에는 밝은 카지노 동네인 폐광지역에서 지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 미술동아리를 개설하여 친구들과 함께 낮에도 밝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던 미술로 지역 곳곳에 벽화를 동아리원들과 채워가고, 폐광 관련 행사가 지역에서 탄광 시절 광부들이 쓰셨던 안전모를 디자인하여 전시하며 작은 동네에서 미술에 대한 꿈을 점차 넓혀갔다. 활동하면서 자문할 멘토를 위해 고등학교에는 미술 교과가 없어서 중학교 미술 선생님을 찾아가 선생님께 자문했다. 이를 통해 멘토에 대한 영향력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친구들의 꿈을 위해 견문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멘토링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어 하이원 장학 멘토링을 통해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다.

멘토링을 시작할 때면 늘 감정 일기라는 것을 나누고 시작하는데 ‘감정 일기’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감정 일기를 멘티 친구들과 나누다 보면 멘티 친구들의 진로 고민도 들어주고 가끔 친구 관계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한다. 이때 나는 나의 경험을

들려주기도 하며 잠깐 멘토 역할에서 벗어나 가끔은 친한 동네 언니의 역할로 다가가기도 하며 멘티들이 대견하기도 하면서 나도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비대면으로 만난 멘티 친구들의 성격 취미 등이 많이 궁금했었다. 캐릭터를 자신의 성격을 투영하여 캐릭터의 성격으로 이모티콘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멘티 친구들의 취미와 성격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한 명의 멘티 같은 경우, 자신의 별명인 ‘오리너구리’를 통해 캐릭터화하여 자신의 성격인 호기심 많고 열정적인 성격을 투영해서 이모티콘을 같이 완성하고 있다. 이렇게 완성한 이모티콘은 출품도 해보며 멘티 친구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다음으로 멘토 역할로써 멘티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다양한 견해였다. 그래서 화가의 작품 관련 서적을 읽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당시 화가의 심정은 어떠한 것인지 혹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술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렇게 견해를 넓히던 중, 온라인 미술 전시회를 감상하게 되었다. 자신이 봤던 온라인 전시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을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기도 하다가 문득 ‘우리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멘티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미술 전시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두 명의 멘티들과 같이 회의를 하며 전시회 기획부터 주제 선정까지 진행했다. 멘티 친구들은 ‘8월의 꽃’이라는 주제를 통해 ‘열 손가락에서 성장하는 여름꽃’이란 작품구상으로 디지털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진행했다. 멘티 친구들의 그림을 넣고 온라인 사이트 인터페이스를 꾸렸다. 멘티 친구들은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회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했고 친구들, 가족들에게 공유도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받았다. 멘티들이 처음에 어렵게 느껴졌던 전시회를 멘토링 아래 처음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 같아 뿌듯했다. 앞으로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친구들의 그림 성장을 기록하기로 했다. 다음 활동으로는 멘토링 내에 디자인싱킹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디자인 싱킹을 통해 ‘폐광촌’이라 교육 시설이 낙후된 우리 동네에서 방과 후’라는 주제로 여러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두 명의 멘티와 ‘방과 후 교통’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중고등학교에는 스쿨존이 없고 그로 인해 운전자들이 학교 주변에서 안전속도를 준수하지 않아 위험했던 적이 있다던 경험을 나누게 됐다. 그 결과 친구들은 ‘우리가 만드는 스쿨존’이란 주제를 정해 트릭아트 횡단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멘티들은 이를 위해 여러 번 초안을 구상해 발표도 하고, 구체적인 장소에 실행 계획을 위해 재료 구매 및 장소 섭외 등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 어려운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배우려는 열의가 크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동시에 지역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어른보다 깊은 아이들.

멘토링 활동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미술을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하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도움을 주는 멘토가 된다는 점과 더불어 내가 살았던 지역의 예체능 교육에 대해 한계점을 느낀 적이 있는데, 중학교 친구들이 같은 한계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열심히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

‘폐광촌’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만난 멘토와 멘티들이 꿈을 실현하려는 열정으로 모여 배움의 터를 넓혀 가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멘토링이란 단순히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의 꿈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한 ‘꿈꾸고(Dream) 도전하라(Do)’, ‘꿈꾸고(Dream) 두드려라(Do) (두드림)’이라는 큰 목표를 미술로 펼치는 두 명의 중학생 멘티와 함께 꿈을 그리고 싶다. 그 친구들에게 동네 언니 같은, 친절하지만 미술만큼은 체대도 도울 수 있는 전문성도 갖춘 멘토가 되고 싶다.

4

5

6

하이드와 하이샘의 진솔한 이야기들

더 단단해진 우리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10개월의 긴 멘토링 장학사업을 통해 우리 하이드와 하이샘은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또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까요?
5명의 하이샘과 4명의 하이드가 진솔하게 풀어낸 속마음, 수기로 만나볼게요.

p092

영월 엄윤주 하이샘

p093

태백 임윤지 하이샘

p094

삼척 장유리 하이샘

p095

영월 신진영 하이샘

p097

영월 박진성 하이샘

p098

정선 박예솔 하이드·영월 유나경 하이드·태백 이소령 하이드·태백 김민영 하이드

이제, 꿈씨앗을 다 심었습니다 활동을 마친 하이쌤·하이드들의 이야기

꿈을 찾아주던 내가 꿈을 찾은 이야기

영월 엄윤주 하이쌤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알기 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가진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갈 수 있게 돕는 진로 멘토의 역할이었지만 나 또한 뚜렷하게 꿈을 정해두고 있지 않았다.

어떤 분야로 나아가야지, 대충 이런 일을 하겠지, 뜬구름 같은 이야기들만 생각했다. 그리고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만난 후에는 꽤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남의 꿈을 찾아주던 내가 꿈을 찾은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이기도 하지만, 내 모든 10개월의 시간을 함께 해 준 하이드 경사와 수빈이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지원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불평등 해소'였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고장에서 보내며 느꼈던 교육 불평등을 후배들도 경험하고 있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후배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역에 학원이 없어 주말마다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아이도 있었고, 오로지 공교육에 의존하여 자라고 있는 아이도 있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씩, 총 4시간의 멘토링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었고, 매주 열심히 기획하고 계획하여 멘토링을 진행했다. 그리고 아이들 한명 한명의 성장을 내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부듯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가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생 아이가 나의 하이드가 되었다. 가르치는 일에는 자신이 없었던 내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소중한 아이이다. 항상 표현을 잘 해 주었고 그만큼 멘토링에도 애정을 가질 수 있었다. 이 하이드와의 멘토링을 통해 교육자란 자신을 깎아가며 남을 완성시키는 존재라고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깎는다는 의미는 오로지 학생만이 아닌, 조각가의 손에 맡겨진 커다란 석고상이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멘토링이 끝날 시점, 하이드들에게 편지를 받았다. 편지 속에서 하이드들은 내게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있었고,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너무나도 정겨웠다. 나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싶다.

"나도 너희들이라서 정말 다행이야."

아이들이 자라남과 동시에 나 역시 내 꿈을 찾고 있었다. 이번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기회로 '교육방송 PD'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약 3년간의 대학생생활을 하며 내 꿈을 공고히 정한 게 처음이라 부듯하기도, 기쁘기도, 그리고 이런 내가 자랑스러웠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지원한 것은 멘토링뿐만 아니라 장학금의 이유도 있었다. 장학금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와 내가 대학교 수업시간에 필요한 교재를 사고, 밥을 먹고 운동복을 사는 등 다방면으로 잘 활용했다. 또한, 어마어마한 서울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던 게 가장 크다. 평소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아 항상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었었는데, 하이원 멘토링 장학 덕에 효녀가 될 수 있었다.

내게 2021년을 떠올리면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 있을 것 같다. 얼마 전 수료식 때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__이다. 라는 문구에서, 빈칸 속에 나는 '무한동력'이라는 말을 넣었다. 내게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끝없는 추진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지칠 법도 한데 그럼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갈 때는 사회인 멘토링을 통해 내가 꿈꾸는 미래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내 인생의 10개월에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 있었기에 앞으로 10년 후의 내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

힘차게 달렸던 지난 날들을 추억하며

태백 임윤지 하이쌤

멘토링을 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랬듯 부족한 교육 인프라 아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하이드들을 보며 그때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뜻뜻한 하이쌤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이드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이쌤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수업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며 간단회, 꿈기움 페스티벌을 통해 하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와 학교에 재학 중인 하이쌤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각 학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인 멘토링을 통해서도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회인 분들과 마주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에 계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제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 아니었다면, 하이원이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여러 콘텐츠를 기획하고, 취재하고 발행하는 과정을 직접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국 분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콘텐츠에 대해 더 생각해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참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른 대외활동에도 참여했고, 대학생 인턴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교에서는 시험 기간이 몰아치고, 대외활동에서는 마감과 보고서가 물밀듯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통해 만난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이원을 통해 제게 힘이 되어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기쁩니다. 시간이 지나도 작년에 제가 해낸 성취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다양한 활동들도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제 자신감의 뿌리를 두었기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 지원에서 떨어졌었습니다. 그 일이 제게는 큰 실패였어요. 한때 제게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다시 도전했고, 뜻밖에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래 왔던 만큼 기뻛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한때는 실패의 이름이었던 것이 지금은 성공의 이름으로 바꾸는 경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제게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도전과 성공의 상징입니다.

앞으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수료하고, 대학교를 졸업해 세상에 나아가더라도 이 시간들을 실패의 두려움에도 도전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얻은 다짐들과 도전에 대한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사회로 나아가려 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조기졸업을 생각 중인 저는 여기까지 함께하려 합니다. 아마 저는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마치며

삼척 장유리 하이섬

일본어 교사를 꿈꾸는 제게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장학금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보다, 마치 (실전이 많이 포함된) 연수를 받는 것 같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3~4개월 간 단기적으로 한 과목을 전담해 교육 봉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하이디들과 반년 이상 함께 하며 수업을 이끈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서툴 때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어서 도중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만날 때 마다 분명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이디들을 마주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교육과 상담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밤에는 하이디들을 만나며 '참된 교육'은 무엇인지 몇 번이나 고민했습니다. 교육에는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 교사, 그리고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 중 한 명인 청소년들은 늘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교육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주축인 교사가 성장하길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직은 교육을 논하는 것이 어렵지만, 단 하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교육은 정체되었을 때가 아니라 흘러갈 때 비로소 '교육'이라 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참여하며 이루게 된 꿈도 있습니다.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예비교사로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과 웹소설 작가가 된 것입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간을 모두 소설을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고, 비싼 요금 때문에

망설였던 '유익어 사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측에서 계약을 제시해 주었을 때, 그리고 대형 연재처에 론칭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행복했습니다. 옛날,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한 연사님께서 강연에서 "그냥 바라기만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그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 버킷리스트도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폐광지역에서 성장하며, 얻을 수 있었던 기회보다 포기해야 했던 기회가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 계속해서 교육의 선순환 자리를 지켜준다면, 그저 바라고 있을 하이디들의 버킷리스트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이원: 선한 영향력

영월 신진영 하이섬

나는 운이 너무 좋은 것 같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에 2번이나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2번 동안 3명의 하이디가 똑같이 2021년에는 적응 기간이 따로 필요 없었다. 심지어 그 3명의 하이디가 착하고 속도 안 빠지고 멘토링에 군말없이 참여해주었다. 사실 다른 하이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진 나의 하이디들이 착한 지 몰랐다. 어떤 하이디는 하이섬 앞에서 멘토링 하기 싫다고 하고, 시간 약속도 자주 어긴다고 들었다. 또 내가 학원 알바를 시작해 보니, 학원에선 대면으로도 공부하기 싫어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이디들은 좀 너머로도 열심히 따라와주고 캠프 쳐주고... 그래서 나는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 이번엔 예술 장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브리즈 아트페어에 불러주셨다. 그때 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하이디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도 해주었다. 오랜만에 많은 미술 작품을 보면서 내가 왜 미술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미술을 좋아하는지 다시 상기할 수 있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꿈키움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나는 미대 진학을 0%의 고등학교를 나왔다. 고등학교 시절, 나에게 조언을 해줄 멘토와 선배가 간절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 내가 모든 정보를 혼자 찾고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예고를 나온 과 동기에게 물어보니 그곳에서는 여러

미대에서 직접 찾아와서 미대 입시 설명회를 해준다고 한다. 미술을 좋아하는 하이디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학과 설명, 과제, 커리큘럼, 준비과정, 공부 등 내가 고등학교 때 궁금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준비했다. 나의 정보가 미술대학 부스를 들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번에도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게 믿기지 않는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진심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보상받는 기분이라 좋다. 작년에 어떤 매니저님이 "사람들이 은근 봉사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살아" 말씀하셨다. 난 그때 봉사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좀 매니저님의 뜻을 알 것 같다. 봉사는 결국 선한 걸 베푸는 것인데 이게 나한테 그냥 시간 낭비일 수 있지만 받는 사람에겐 엄청 큰 것일 수 있다.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은 결국 그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다. 그래서 봉사는 중요하다. 사실 대학생에게 일주일에 4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이다. 작년에 나는 학교 수업과 주 40시간의 알바와 하이원 멘토링, 전시를 병행했다. 죽는 줄 알았지만 살아있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백만 번 외쳤다. 약 1년에 달하는 여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신 모든 하이섬들을 존경한다. 그 봉사는 꼭 나중에 되받을 거예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해준 하이원 멘토링 장학

영월 박진성 하이섬

2020년, 하이원 멘토링 장학 1기로 선발되었을 때, 정말 열렬했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온라인 멘토링을 경험해본 적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장학금과 대외활동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었기에 내가 온라인 멘토링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섞인 감정이 들었다. 의욕이 앞섰던 2020년의 나는 6개월의 멘토링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최우수 하이섬으로 선정되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결과였고 나라의 사람이 이러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었다.

또 최우수 하이섬으로 선정된 덕분에 2021년에도 장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 열심히, 잘 해야해'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고, 이 부담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말아야 하는 하이디가 3명으로 늘어났고, 지난 해에 비해 하이디들의 멘토링 집중도와 참여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져갔다.



역시 나라의 사람의 한계는 여기까지라며 스스로를 책망했고, 멘토링에 대한 패기와 열의는 어느 순간 줄어들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하이디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아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했다.

나는 지금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지만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2년간 진행하며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항상 멘토링이 끝나는 날이 올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활동을 지속했는데, 어느새 끝이라니. 마지막은 항상 아쉽고 시원섭섭한 것 같다. 많이 부족하고 노력해야하는 나이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이 계속 이어져 나처럼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변화를 겪는 장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처음 만날 때 대학교 3학년 학생이던 내가 어느새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때보다 더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되었다. 이제 진정한 사회인이 되어 지역사회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지금도 어디선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아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 되기를. 또한, 힘든 상황에도 곳곳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학생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의 말을 꼭 전하고 싶다. 꼭 성공하지 않아도 되니,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 너희들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저를 성장하게 해준

하이원 멘토링 장학!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지역사회 청소년, 대학생들을 위해 지금처럼 좋은 사업을 이어가주세요!

내가 배운 한 가지

정선 박예솔 하이디

10개월동안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 학교생활 하는 6개월은 공부를 안 했다. 그러던 내가 공부를 시작했다. 최대 8시간까지 공부하고 노트 정리도 했다. 그렇게 시험도 치렀고 한국사 능력 시험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 이걸 하이원 멘토링 장학 덕분이다. 절대로 나 혼자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다. 한 가지 깨달은 점도 있다. 어른들의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라는 이야기가 솔직히 잔소리 같아서 안 들었다. 근데 이번엔 느낀 건 정말 짧은 시간, 단 10분이라도 집중하면 공부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엔 시험을 준비하면서 엄마가 밥 차릴 때 등 자투리 시간으로 여러 번 공부했더니 그 짧은 시간이 모여 한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멘토링이 정말 재밌었다. 좋고 재밌는 하이섬을 만나서 늘 재밌게 수업했다. 마지막 멘토링 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

태백 이소령 하이디

나는 차 없는 절대 갈 수 없는 먼 학교에 다닌다. 그래서 교통비가 꽤나 많이 든다. 하지만 하이원 장학금 덕분에 부담을 덜고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평소라면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사지 못했을 교재도 사고 학업에 필요한 공책도 여유 있게 샀다. 고등학생이다 보니 아무래도 돈 쓰일 곳이 많은데, 하이원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1년을 어떻게 보냈을지 정말 엄두도 안 난다. 장학금뿐만 아닌 온라인 멘토링도 매우 만족스러웠다. 태백이라는 지역에서 전혀 할 수 없는 것들, 특히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받는 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고 장학생만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하이디끼리 모여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 것도 도움이 되었고 정말 너무나 값진 기회를 얻은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다. 다른 학생에게도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꼭 추천하고 싶다.

하이디 생활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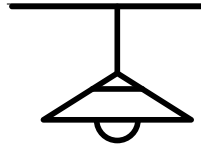
영월 유나경 하이디

해가 지날수록 공부에 흥미를 잃던 중에 하이섬께서 주신 기회 덕에 살면서 해본 영어 공부 중 제일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매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공부에 흥미를 잃어가던 저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자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성취감을 얻었고 어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이자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전이라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울하거나 속상했지만 자잘한 성취감이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는 생각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어주었고, 스스로에게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알려주신 담임 선생님과 기획을 주신 하이원 멘토링 장학, 그리고 양다경 하이섬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히려 불안했던 시기에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제가 더 큰 사람이 되어있었으니까요.

멘토링을 마치며

태백 김민영 하이디

하이섬과의 수업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2021년 하이원 멘토링 장학의 하이섬은 이제是我的 롤모델이 될 정도로 멋진 분이였다. 주변에 하이섬처럼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스스로도 무관심했었는데 하이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고3을 어떻게 보낼 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멘토링 기간 동안 총 4권의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었다. 독서 멘토링을 통해서 흥미로운 내용의 책을 많이 알게 되었고, 독서에 재미를 느끼게 됐다. 하이섬께서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우리를 위해 면접 등을 대비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고 기다려 주셨다. 그 덕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독서와 관련하여 입시 면접에서의 예상 질문이나 나의 의견에 근거를 제시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



Ending letter

120명의 하이쌤, 그리고 수백 명의 하이디들과 숨 가쁘게 달려온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정말로 떠나보낼 순간이 왔네요.

학생 시절, 한 학년이 끝나고 새 학기를 맞이하기 전 같은 반 친구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종업식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일 년간 함께 했던 제자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을 선생님의 마음이 앤딩 레터를 쓰고 있는 지금 제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하이쌤’이라는 예쁜 이름을 달고 상기된 표정으로 처음 마주했던 장학캠프부터, 어느새 익숙해진 하이쌤과 작별하는 수료식까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수많은 순간들을 함께 했기에 저희 사무국도 기억에 남을 10개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 운영 사무국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때로는 길잡이의 역할을, 개인적으로 힘이 들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대나무숲의 역할을,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하이디에게 그러했듯 여러분의 하이쌤이 되어 든든한 멘토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이쌤이었던 2021년의 소중한 경험을 잘 간직해 주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늘 같은 자리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지영 매니저



안녕하세요 하이쌤 여러분! 벌써 시간이 흘러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끝이 있어서 모든 것이 아쉽고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벚꽃 구경을 가면 벚꽃이 진다는 사실에 아쉽고 소중해서

한 번 더 보려고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요.

10개월 동안의 아쉬움은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에게

꼭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10개월의 소중함을 잘 간직하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해 발걸음을 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한중교 매니저

하이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이 아직은 작별 인사를 건네기 아쉬워 꽃샘추위가 찾아오듯

저도 여러분과의 이별이 낯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과 보낸 날들이 왠지 모를 설렘을 주는

봄인 것 같습니다. 비록 얼굴을 맞대고 많이 만나지 못했어도

약 10개월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고 웃었던 날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행복하고 설레었던 기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로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나누며 사무국에게

기대는 모습, 하이디들과 함께 과제나 학업을 척척 수행하며

하이디에게 기댈 수 있는 하이쌤의 모습을 보며 기꺼이 기대고,

또 기댈 곳을 나눠주는 하이쌤들이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라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저의 이 마음처럼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마음이 간질거리는 순간으로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봄 햇살 같이 포근하고 따사로운 하루하루

소중하게 채워나가길 항상 응원합니다.

또 만나요!

-황선영 매니저

하이쌤&하이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랜드 사회공헌팀 박지현입니다.

먼저 지난 10개월간 장학생 활동에 진심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폐광지역으로 하나 된 우리는 10개월간 멘토링 총 누적시간 13,408시간을 기록하며 학업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으로 장학생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일 순 없었지만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된 인원이나마 직접 만나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꿈기움 페스티벌(진로 박람회)’에서 서포터즈들의 눈부신 활약을 마주했던 순간의 감동과 보람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장학사업을 멘토링 기반으로 전환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의 멘토가 되는 일, 또 누군가의 멘티가 되는 일, 둘 중 어느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시작 첫해에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걱정보다 기대가 커지고, 우리만의 멘토링 노하우가 쌓여가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선후배가 연결된 멘토링을 통해 우리 장학생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을, 나보다 먼저 앞선 길을 가고 있는 선배를, 내가 걸었던 길을 걷고 있는 후배를 참 많이 위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마음들이 모여 멘토링 장학의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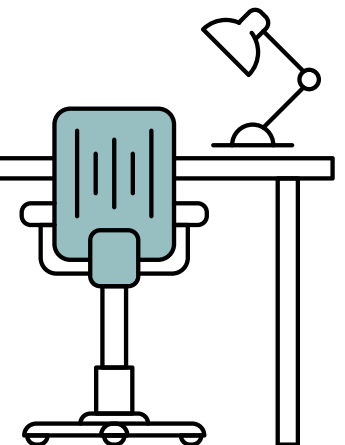
장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과테의 명언을 소개합니다.

“한 시간에는 일 분이 욕심 개가 있다. 하루에는 무려 천 개가 넘게 있다. 절대 잊지 말아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빛나는 내일을 위해 가슴 뜨거운 오늘을 보내는 하이원 장학생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하이원 장학생 파이팅!!

-강원랜드 사회공헌팀 박지현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보고서

하이원과 함께 하이파이브

발행 2022년 3월

총괄 기획 ㈜강원랜드 사회공헌팀

컨텐츠 제작 사단법인 점프(운영 사무국)

디자인 네거티브 에이치(negative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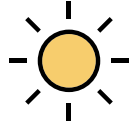
인쇄 신세계기획

저작권자 © 강원랜드

※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보고서의 저작권은 주관사에 있습니다.

임팩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보고서

